

E A S Y
F U N
L O V E

큐원 홈메이드

홈 베이커리를 더 쉽게, 즐겁게
엄마의 사랑을 담아 더 맛있게!

만들기 쉬우니까
아이들도 좋아하니까
맛은 더 건강하니까
매일매일 자랑하고 싶은
우리가족 간식, 큐원 홈메이드



겉은 바삭 속은 쫄깃, 스페인 정통츄러스의 맛!



카페와 전문점에서 즐기던 부드럽고 달콤한 맛!



16가지 곡물분말로 더욱 고소하고 담백한 맛!

華嚴書院 山仰會報



社團法人 華嚴書院 山仰會

(57223) 全南 長城郡 黃龍面 鷓梁寺원로 184 電話 : 061-394-0833
發行人 : 山仰會 理事長 鄭煥淡 編輯主幹 : 金梓洙

하서 김 이후 선생은 해동의 周敦頤요 호남의 孔子

초헌관 정운염(鄭雲炎)

조선시대 선비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성균관 문묘에 배향된 선비들이다. 문묘에 배향할 인물을 선정할 때에는 8도 선비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임금이 가납하는 형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흠이 있으면 결격되기 마련이었다. 당시 검증의 기준은 본인의 저술이 많다거나 정치적 지위가 높다거나가 아니라 오직 성리학을 얼마나 충실하게 체득했으며, 깨끗하고 지조 있는 삶이 어떻게 선비사회의 사표가 되었는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위에 말한 기준에 따라 문묘에 배향된 선비는 모두 18명이다. 이를 보통 동국 18명현이라 부른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신라시대 인물로서 설 총과 최 치원이고, 고려시대 인물은 안 향과 정 몽주이며, 조선시대 인물이 14명으로, 김 굉필 정 여창 조 광조 이 언적 이 황 김 이후 성 혼 이 이 조 현 김 장생 김 집 송 시열 송 준길 박 세채이다.

위 18명현이 문묘에 종사된 시기를 살펴보면 광해군 2년(1610)에 김 굉필 정

여창 조 광조 이 언적 이 황이 이른바 ‘오현(五賢)’으로 불리면서 맨 먼저 종사되고, 숙종 7년(1681)에 성 혼과 이 이, 숙종 43년(1717)에 김 장생, 영조 32년(1756)에 송 시열과 송 준길, 영조 40년(1764)에 박 세채가 종사되었다. 이어 정조 20년(1796)에 김 이후가 종사되고, 고종 20년(1883)에 조 현과 김 집이 마지막으로 종사되었다.

18명현이 문묘에 종사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광해군 2년에 5현이 종사될 때에는 바로 뒤에 대북파의 영수인 정 인홍(鄭仁弘)의 비판을 받아 이 황이 출척되고 조 식이 종사되었다가 다시 취소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숙종 7년에 성 혼이 종사될 때에도 일부 반대운동이 일어났고, 영조 32년에 송 시열이 종사될 때나 영조 40년에 박 세채가 종사될 때에도 역시 일부 반대운동이 있었다.

그런데 하서 김 이후의 경우를 보면, 그의 문묘종사에 대한 반대론이 전혀 없

었다. 조선 왕조를 중흥시킨 정조가 그의 문묘배향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김 이후 문묘종사는 왜 반대론이 없었던가?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김 이후의 학문과 행적에 트집잡을 만한 흠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김 이후를 평가한 정조 자신의 권위 때문이었다. 정조는 군도(君道)와 사도(師道)를 겸비한 이른바 군사(君師)의 초월적 군주상을 가진 임금이라는 점에서 선대의 어느 임금도 갖지 못한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호남 출신 인사가 아직 한 사람도 문묘에 배향된 일이 없었다는 점도 지역 균형상 고려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이후가 벼슬길에 오른 것은 31세인 중종 35년(1540)에 문과에 급제하면서부터다. 기묘사화가 일어난 지 21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외교문서를 관장하던 승문원의 부정자(종9품)에서 시작한 그의 벼슬은 홍문관 정자(정9품)와 저작(정8품)을 거쳐 중종 38년(1543)에는 홍문관 박사(정7품)로서 세자시강원 설서(說書)를 겸하여 뒷날 임금이 된 인종의 스승이 되었다.

그는 이 무렵 경연(經筵)에 검토했관으로 나가 중종 14년(1519)에 심정(沈貞) 이항(李沆) 등을 소인으로 지목하고, 조 광조 등 기묘명현이 시행했던 향약(鄉約)과 소학(小學) 보급이 중단된 것을 비판하는 발

언을 하여 기묘명현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기묘명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평가하고 신원(伸冤) 운동에 나선 것은 김 이후가 처음이다.

뒷날 인종이 된 세자는 중종의 장경왕후 윤씨(세칭 대운)의 아들로서, 김 이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스승을 몹시 존경하여 자신이 직접 그린 묵죽도(墨竹圖)를 스승에게 주고 시를 쓰도록 하기도 하여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돈독했다.

그러나 홍문관 수찬(종6품)에 오른 김 이후는 동궁(東宮)의 화재사건을 보고 벼슬에 대한 뜻을 접기 시작했다. 중종의 셋째왕비인 문정왕후의 아들을 임금으로 세우려는 소윤파(小尹派)의 음모가 심상치 않음을 보고, 장차 기묘사화와 같은 큰 불상사가 또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연로한 부모님을 봉양한다는 효심을 핑계로 고향 장성에 가까운 옥과 현감을 자청해서 나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의 벼슬살이의 끝이었다.

옥과 현감 시절 중종이 승하하고 인종이 즉위하자 임금은 김 이후를 국장(國葬)의 제술관으로 불렀으나, 인종이 원인 모를 병으로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자 김 이후는 벼슬을 단념하고 신병을 이유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

명종이 즉위하면서 예상한 대로 인종을 따르던 정치세력이 소윤파에 의해 큰

화를 당하는 을사사화의 태풍이 몰아쳤는데, 이 때 만약 김 인후가 낙향하지 않았다면 큰 화를 입었을 것이다.

36세의 약관에 고향 장성의 사제로 돌아온 김 인후는 51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15년간 오로지 학문과 후학교육, 그리고 시주(詩酒)를 즐기면서 살았다. 인종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산속에 들어가 혼자 통곡을 하기도 했다. 명종은 학식과 덕망이 뛰어난 그에게 성균관전적, 전라도사 등의 벼슬을 잇달아 내렸으나 김 인후는 건강을 이유로 나가지 않았고, 인종에 대한 추모의 정(情)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장성 시절 김 인후의 생활은 매우 곤궁하여 비와 바람을 가릴 수 없었고, 처자들이 의탁할 곳이 없었으며, 서울을 왕래할 여비마저 부족했다고 한다. 부귀와 영달을 스스로 물리친 참 선비의 삶 그대로였다. 문정왕후와 척족정치의 비리를 바라보면서 그들과 타협할 생각은 조금도 갖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윤 원형은 김 인후를 연좌시켜 죽일 음모를 꾸미기도 했다고 한다.

김 인후에 대한 국가적 추앙사업은 서인이 집권한 효종 때부터 시작되었다. 효종 10년(1659)에 그를 제향하는 서원에 필암(筆巖)이라는 액호를 내렸는데, 실제 사액은 현종 3년(1662)에 이루어졌다. 그 후 현종 9년 (1668)에는 을사사화 이후 출처

가 분명한 사람은 김 인후만한 사람이 없다는 점을 평가하여 이조판서 벼슬을 추증하였으며, 이어 현종 10년 (1669)에는 문정(文靖)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그 후 송 시열 김 수항 박 세채 양 자징 등 명유들이 각기 김 인후의 신도비명(神道碑銘) 묘표(墓表) 행장(行狀) 가장(家狀)을 지어 추모하였는데, 특히 신도비명은 뒷날 정조가 김 인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

송 시열은 도학 절의 문장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놓고 김 인후를 평가했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두루 갖춘 인물이 바로 김 인후라고 보았다. 먼저 도학에는 소학(小學)과 대학(大學)의 가르침을 가장 존중하고, 당시 이 황 기 대승 이 항 사이에 벌어진 사단칠정 인심도심(人心道心) 도(道) 기(器) 등을 둘러싼 논쟁에서 기 대승은 김 인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다음에 절의와 문장으로 말하면 일심(一心)에 천지인(天地人)의 삼재(三才)를 조화시키는 묘(妙)를 품고 있으며, 일신(一身)에 만세강상(萬世綱常)의 무게를 맡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시는 시경(詩經)에 뿌리를 두고 당시(唐詩)를 참작하여 맑으면서도 격하지 않고, 간결하면서도 상(傷)하지 않다고 평했다. 그리고 김 인후가 지었다고 알려진 주역관상편(周易觀象篇)과 서명사천도(西銘事天圖)가 후세에 전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정종 때에 중국에서 사신이 오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문을 보여주었는데 김인후의 ‘칠석부(七夕賦)가 뽑히기도 했다.

정조 때에는 호남양전사로 내려간 원경하(元景夏)가 호남사정을 임금에게 보고하는 가운데 호남출신 유명인사들의 행적을 소개하면서 김인후는 깊은 학문과 고상한 식견을 가졌다고 행적을 소개하며 이들의 후손을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옥과 현감 송명흠은 옥과현에 세운 영귀서원에 사액하여 김인후를 추앙할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김인후에 대한 숭모사업은 200여년을 두고 이어져 오다가 드디어 정조라는 영주(英主)를 만나면서 활짝 꽃을 피우게 된 것이다. 김인후의 문묘종사가 결정된 것은 정조 20년(1796)이었지만, 정조는 김인후에 대한 관심과 숭모의 마음을 훨씬 이전부터 지니고 있었다. 이미 정조 10년(1786) 2월에 왕은 인종의 효릉을 참배하고 나서 인종이 김인후를 만난 것은 이 세상에 드문 일이라고 말한 다음 그 후손을 효릉의 참봉으로 등용할 것을 명했고, 다음날 전라도 진사 이경집의 상언(上言)을 따라 김인후의 사위이자 문인인 양자징을 필암서원에 배향할 것을 명했다.

그 후 정조 10년 8월부터는 8도 유생들이 잇달아 상소를 올려 김인후의 문묘배향을 요청하고 나섰는데, 상소요청은 10

년간 계속되었다. 첫 번째 상소는 8도 유생을 대표하는 박영원(朴盈源) 등이 올린 상소였는데, 정조는 “문정공의 학문조에 대해서는 내 일찍이 존경하고 사모하였으나, 문묘에 배향하는 것은 큰 전례(典禮)이므로 몇 백 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가볍게 논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 뒤로 팔도유생의 상소는 네 차례나 더 이어졌다.

김인후에 대한 정조의 간절한 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정조 20년(1796)에 일어났다. 이 해 6월 22일에 성균관의 8도 유생 이명채 등이 조헌(趙憲)과 김집(金集)의 문묘배향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리자 정조는 섭섭한 마음을 피력하면서 도학 절의 문장으로 인물을 평할 때 김인후만이 이 세 가지를 겸비했다고 하면서 실망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정조의 뜻이 밝혀지자 팔도 유생들이 힘을 얻어 많은 상소가 답지했다. 이렇게 해서 성균관 유생들의 상소가 올라오자 정조는 드디어 9월 17일 상소를 윤허하는 비답을 내렸다. 정조는 김인후의 문묘종사를 윤허하면서 그의 위상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하나 더 보탰다. 그것은 김인후가 동방의 주자(周子)라는 것이다. 주자는 바로 염계(濂溪) 주돈이(周敦頤)이다. 염계는 북송(北宋)에서 성리학의 기초를 놓은 인물이다. 주돈이 뒤로 장재(張載), 정호(程灝) 정지(程頤) 형제가 나오

고, 그 뒤를 이어 주자(朱子)가 나와 성리학을 집대성한 것이다. 그런데 周子를 빼놓고 二程 張載 朱子를 모셨다면 이정 장재 朱子의 마음이 편했겠느냐고 정조는 반문하면서, “문정공 김 인후를 문묘에 모시는 것은 바로 조광조 이 황 송시열의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조가 김 인후의 도학을 周子에 비유한 것은 김 인후가 주돈이의 학문만 따랐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주돈이의 太極圖說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밖에 장재의 서명에도 깊은 감동을 받았고, 또 주희가 정리한 大學의 가르침도 후학들에게 강조했다는 것이다. 정조는 나아가 김 인후를 우리나라 儒學의 종장(宗匠)이라고 극찬하고 현종 때 올려준 이조판서를 영의정으로 올려주고, 이 해 10월 16일에는 문정(文靖)이라는 시호를 文正으로 바꾸도록 지시했다.

정조 20년(1796) 11월 8일을 기하여 임금은 성균관 문묘에 가서 정식으로 김 인후를 문묘에 종사하는 의식을 치렀다.

맺는말로 하서선생 문묘배향의 의미와 의의를 되새겨본다. 김 인후는 호남에서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된 분이다. 먼저 김 인후의 학문은 해동의 염계요 호남의 수사(洙泗:공자)이다. 성명(性命)과 음양의 깊은 뜻은 태극도설의 수준에 이르고 격물치지(格物致知)와 성의정심(誠意正心)의 요체는 소학과 대학을 아울러 본

원적인 공부로 삼았다. 천지간에는 오직 공자와 朱子 두 사람만 있다는 시를 써서 추앙했으며 일찍이 주역관상편을 지었는데, 대의를 독창적으로 밝혔다. 道와 器가 하나로 섞여 있다는 견해를 잘못된 것으로 내치고 이기와 사단칠정에 관한 변론을 후련하게 풀어주었다.

김 인후의 절의는 엄동설한의 송백(松柏)과 같고 밖으로 드러난 자태는 맑은 물위의 연꽃과 같다. 거의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다.

김 인후의 문장은 비록 여사(餘事)였지만 윤리를 지탱하여 풍속을 밝혀 뒷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밝게 융납되어 틈이 없었다.

김 인후는 문묘에 배향된 14명의 선정(先正) 가운데 한 분으로 성리학을 정학(正學)으로 수립하여 문풍과 풍속을 바로 잡으려 했던 탕평책의 소산이기도 하다.

(한 영우 지은 <한국선비지성사>를 참고하여 정 운범 씀)

도학과 절의와 문장의 선비, 하서 김인후 선생 기행

김세곤 (호남역사연구원장)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 1510~1560) 선생을 찾아 나선다. 김인후는 문묘에 배향된 18현 가운데 호남 유일의 선비이다. 가는 곳은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맥동마을의 백화정이다. 이곳은 김인후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다. ^{주1)}

맥동마을 입구에는 붓처럼 생긴 바위 ‘필암(筆巖)’이 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붓모양의 봉우리(文筆峰)이나 바위가 있으면 큰 학자가 태어난다고 한다.

백화정에서

백화정은 보통 문이 닫혀 있다. 문에 연락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들어가고 싶으면 전화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운 좋게도 필자가 방문한 날은 백화정 문이 열려 있었다.

백화정 정문 앞에 있는 안내표석에는 “백화정은 1552년에 건립된 하서선생의 외현(外軒)이다. 민씨 할머니께서 낙남(落南)하여 손수 잡은 이 집터에서 태어나신

선생은 ... (후략)”라고 적혀 있다.

울산김씨가 장성에 뿌리를 두게 된 것은 김인후의 5대조인 흥려군(興麗君) 김온(金穩 1348~1413) 때의 일로, 태종 임금 때 양주목사 김온이 세자 책봉 문제에 연루되어 1413년(태종13년)에 사사(賜死)되자, 부인 민씨가 3형제(달근·달원·달지)를 데리고 장성 맥동에 내려와 정착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민씨부인은 태종의 왕후인 원경황후 민비의 큰집 언니였다.

김인후의 고조부는 김달원이고 증조부는 김의강이며, 조부는 금구훈도 김환이었다. 부친은 김령이고 모친은 옥천조씨이다.

김인후는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였다. 5살이 되던 해 정월 보름날에 아래 한시를 써서 주위 사람을 놀라게 했다.

높고 낮음은 땅의 형세요
이르고 늦음은 하늘의 때라
사람들 말이야 무슨 힘 되랴.

밝은 달은 본래 사심이 없도다.

高低隨地勢

早晚自天時

人言何足恤

明月本無私

8세 때에는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한 정암 조광조(1482~1519)의 삼촌인 조원기(1457~1533)로부터 ‘장성신동 천하문장’이라는 칭찬을 받았다. 9세 때 봄에는 고봉 기대승의 삼촌인 기준(1492~1521)을 만나 ‘우리 세자의 신하가 될 만하다’는 칭찬을 들으면서 붓을 선물받기도 하였다.

10세 때는 전라도 관찰사 김안국을 찾아가 소학을 배웠으며, 18세에는 기묘사화로 화순 동북에서 유배중인 최산두를 찾아가 공부를 배웠다. 19세 되던 1528년에는 성균관에서 주관한 백일장에서 칠석부로 장원을 하였다. 이 당시 시관이었던 대제학 이행(李荇)은 남이 써 준 글이라고 의심하여 김인후에게 7가지 제목을 주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김인후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지어 이행의 의심이 풀렸다 한다.

김인후는 1531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533년에 성균관에 입학하였으며, 이때 퇴계 이황과 교우 관계를 맺고 함께 학문을 닦았다. 주2)

이어서 김인후는 1540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에 임용되었으며, 이듬해 호당(湖堂)

에 들어가 사가독서(賜暇讀書: 휴가를 얻어 독서에 전념)하고, 홍문관 저작(弘文館著作)이 되었다.

난산(卵山)에서

백화정에서 앞을 바라보니 산과 산 사이에 계란 같이 둥그런 동산이 하나 보인다. 이름하여 난산(卵山)이다.

백화정에서 맥동마을 쪽으로 조금 가다가 좌회전하여 2분 정도 가니 난산 입구에 이르렀다.

난산 입구에는 비각이 하나 있다. 바로 난산비각이다. 거기에는 ‘난산지비’라고 적힌 비가 세워져 있다. 옆에는 ‘장성 김인후 난산비’라고 표시된 안내판이 있다. 여기에는 “하서 선생은 인종이 승하하신 7월 1일이면 이곳 난산에 옆드려 종일 통곡하였다”고 적혀 있다.

하서의 이 같은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단이 통곡단(痛哭壇)이며, 그 사실을 새겨 세운비가 난산비이다. 1793년 무렵에 윤행임이 비문을 지었으나 비를 세우지 못하였는데, 1843년 아들 교리 윤정현이 추기(追記)를 쓰고 광주목사 김철영이 비를 세웠다.”라고 적혀 있다.

여기에서 2-30 걸음 걸으니 통곡단이 있다. 아, 이곳이 바로 김인후가 인종임금 기일(忌日) 때마다 통곡하던 곳이로구나.

김인후는 1540년(중종 35)에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로 벼슬을 시

작했다. 1541년에는 호당에 뽑혀 이황, 나 세찬, 임형수 등과 사가독서(유능한 문신 들을 뽑아 휴가를 주어 독서당에서 공부 하게 하는 일)의 영광을 누렸다.

1543년에는 홍문관 박사 겸 세자시강원 (世子侍講院) 설서(說書 정7품)에 임명되 어 인종(1515~1545)과 인연을 맺었다.^{주3)}

이 때 김인후의 나이는 33세, 인종은 28 세로 인종은 김인후보다 5살 아래였다.

인종은 이름은 호(岫)인데 1515년 태어 날 때부터 불행하였다. 모친 장경황후가 그를 낳은 후 산후병으로 돌아가셨기 때 문이다. 그는 3세 때부터 글을 읽기 시작 하였고, 5세인 1520년(중종 15)에 세자로 책봉되었다.

1522년에 관례(冠禮)를 행하고 성균관 에 들어가 매일 세 차례씩 글을 읽었고, 화려한 옷을 입은 시녀를 궁 밖으로 내쫓 을 만큼 검약한 생활을 할 정도로 성균으 로서의 자질을 가졌다.

한편, 인종은 김인후를 극진히 사랑하여 묵죽도를 그려주었다. 이 그림은 바위가 하나 있고 그 근처에 대나무가 네그루 있 다. 그런데 대나무 한 그루는 너무 휘어져 넘어지려 하는 모습이다.^{주4)}

하서는 이 그림 아래에 칠언절구 시를 썼다.

묵죽도에 쓴 시

뿌리와 가지, 마디와 잎새가 모두 정미하니

바위를 친구삼은 정갈한 뜻 여가에 있지 않습니까.
임금님의 조화를 비라는 마음 비로소 보았나이다.
온 천지가 어찌 어김이 있겠습니까.

-신(臣) 김인후

根枝節葉盡精微 근지절엽진정미
石友精神在範圍 석우정신재범위
始覺聖神侔造化 시각성신모조화
一團天地不能違 일단천지불능위

또한 새로 간행된 ‘주자대전’ 한 질을 주 었으며 술도 같이 마셨다.^{주5)}

인종 임금을 못 잊어서

1544년(중종 39) 11월 15일, 중종이 재 위 39년 만에 승하하자 인종이 왕위에 올 랐다.

1543년 12월부터 옥과현감으로 근무하 고 있던 김인후는 중종의 붕어와 인종의 등극 소식을 옥과현에서 들었다. 김인후 는 인종을 곁에서 모시면서 지키고자 하 였다. 1545년 5월에 명나라 사신이 국상 (國喪)의 조사(弔使)로 서울에 오자 조정 은 김인후를 제술관으로 불러들였다.

그런데 인종의 병은 너무 깊었다. 중종 의 상을 치르느라 지나치게 정성을 다하 고 거친 음식에 몸이 상한 것이다. 김인후 는 문정왕후가 임금의 약 처방까지 한다 는 데 불안했다. 또한 임금과 한 궁궐에 있는 것도 미심쩍었다. 그래서 자신이 인

종의 약 처방에 동참하겠다고 약원(藥院)에 청하였으나 소임이 다르다고 거절당했다. 임금의 거처를 옮길 것을 건의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효종은 ‘역(逆)이지만 기실은 충(忠)이다.’라고 하였다. 비록 계모이지만 엄연히 어마마마인 문정왕후를 의심한 것은 죽을 죄에 해당되지만 인종의 쾌유를 위해 직언하고 행동했으니 충절이라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인종은 1545년 7월1일 재위 8개월 만에 승하한다. 생모 장경왕후를 일주일 만에 여원 비운의 왕은 나이 서른에 요절한 것이다. 야사는 ‘문정왕후가 준떡을 먹고 죽었다’고 전한다. 일종의 독살 설이다.

인종이 승하하자 김인후는 옥과현감을 그만두고 낙향했다. 36세의 나이에 세상과 인연을 끊은 것이다. 이후 명종이 벼슬을 여러 번 하사하였으나 끝내 사양하였다. 주6)

김인후는 인종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하여 세상 떠나기 하루 전에 “내가 죽으면 옥과현감 이후의 관작은 기재하지 말라”고 유언하였다 한다.

한편, 김인후는 인종이 너무나 그리웠다. 그가 쓴 ‘그리운 사람(有所思)’이란 시를 읽어보자.

임의 나이는 서른이 되어 가고

내 나이는 서른여섯이 되는데
새 즐거움 반도 못 누렸건만
한 번의 이별은 활줄 떠난 활 같네.
내 마음 돌이라서 굴러갈 수도 없는데.
세상일은 동으로 흘러가는 물 같아.
한창때 해로할 입 잃어버리고
눈 어둡고 이 빠지고 머리마저 희었네.
물려 살면서 봄가을이 몇 번이던가.
오늘까지 아직도 죽지 못했소.
잣나무 배는 황하 종류에 있고
남산엔 고사리가 돌아나는 데
도리어 부러워라, 주나라 왕비가
생이별 하며 도꼬마리를 노래하더니

인종의 나이는 30세, 김인후는 36세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시는 1545년 경에 쓴 것이리라.

1546년에 하서 김인후는 인종의 기일(忌日)인 7월 1일에 난산(卵山)에서 인종을 그리며 종일토록 통곡하였다. 제자인 송강 정철(1536~1593)이 그 모습을 시로 남겼는데 그 편액이 필암서원 청절당에 있다.

동방에는 출처 잘 한 이 없더니
홀로 담재옹(하서의 다른 호)만 그리하였네.
해마다 칠월이라 그날이 되면
통곡소리 온 산에 가득하였네.

東方無出處 동방무출처

獨有湛齋翁 獨유담재옹
年年七月日 년년칠월일
痛哭萬山中 통곡만산중

이후 김인후는 매년 인종의 기일인 7월
초하루에는 술을 가지고 난산에서 술 한
잔 마시고 한번 곡하고 한 잔 마시고 한번
곡하다가 취하면 소리 내어 울었을 정도
로 인종을 못 잊어 했다 한다. ^{주7)}

주1) 김인후(金麟厚)의 이름에 기린 린(麟)글자를 넣은 까닭은 태몽에 기린이 나타났고, 기린이 상서로운 동물이어서 그랬다 한다. (김병호, 하서 김인후 선생 이야기, 대동문화재단, 2007, p 18)

주2) 하서 김인후와 퇴계 이황은 1533년에 성균관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에는 기묘사화가 일어난 뒤라 사람들이 모두 학문 하는 것을 기피하고 희학(戲謔)하는 것으로 나날을 보낼 뿐이었다. 그런데 하서와 퇴계는 오직 서로 뜻이 맞아 왕래하며 끊임없이 강마(講磨)하였다. (〈하서전집〉 부록 권1 '행장')

김인후는 1540년 문과 급제 후 1년 뒤에 독서당(일명 호당)에서 퇴계 이황을 다시 만났다. 독서당 동문은 나세찬(1498~1551), 임형수(1514~1547), 정유길, 송기수 등 13명이었다.

주3) 세자시강원은 세자의 교육을 담당했던 관청으로서 세자를 모시고 경사(經史)를 강독(講讀)하며 도의를 바르게 계도하는 일을 관장한다. 관원으로는 영의정이 겸임하는 사(師:정1품) 1명, 부(傅:정1품) 1명, 이사(貳師:종1품) 1명, 좌·우빈객(左右賓客:정2품) 각 1명, 좌·우부빈객(종2품) 각 1명은 겸직하고, 찬선(贊善:정3품)·보덕(輔德:정3품)·검보덕(정3품)·진선(進善:정4품)·필선(弼善:정4품)·겸필선(정4품)·문학(文學:정5품)·겸문학(정5품)·사서(司書:정6품)·겸사서(정6품)·설서(說書:정7품)·겸설서(정7품)·자의(諮議:정7품) 각 1명을 두었다.

4) 인종이 내린 목죽도는 판각되어 필암서원 장경각에 보존되어 있고, 원본은 국립광주박물관에 위탁 보관되어 있다.

5) 주자대전은 중국 남송의 유학자인 주희(1130~1200)의 시문집이다. 원집 100권 87책, 속집 11권 4책, 별집 10권 4책으로, 총 21권 95책을 이룬다. 우리나라에서는 1543년(중종 38) 을해자로 간행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인종의 주자대전 하사는 김인후에 대한 두터운 신임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김인후는 이 책에 붉은 점을 치가며 정독하였다 한다.

6) 정대년을 경기 관찰사로, 심봉원을 승정원 동부승지로, (중략) 김인후【김인후는 청렴하고 근신함으로 자신을 지키고 세속의 누(累)에서 벗어나 시와 술로 세월을 보내며 강호(江湖)에서 풍월을 읊조리고 있었다.】를 성균관 전적으로 삼았다. (명종실록 1553년 7월21일)

7) 송시열이 지은 김인후의 신도비에도 “7월 인종이 승하하자 김인후는 부음을 받고 놀라 통곡을 하여 거의 기절하였다가 깨어났으며, 이로 인해 병을 얻어 현감의 직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왔다. 또한 매년 7월 1일에 집 남쪽 산골짜기에 들어가 통곡하고 돌아왔다.”고 적혀 있다.

誠

誠이란?

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것은 中庸이다.

中庸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도이며, 성실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라고 한 것처럼, 성은 天道로서의 誠과 인간의 기본적 덕목으로서의 誠으로 구분된다. 中庸에서는 천도로서의 성에 대해 “성이란 物의 처음과 끝이다. 성이 없으면 물도 없다. 성이란 자기를 이룰 뿐만 아니라 만물을 이루게 하는 所以가 된다.”고 한다. 이때의 성은 만물의 존재 근거가 된다. 한편 성은 사람들이 천도의 실현을 위해 실천해야 할 덕목이다.

孟子 盡心上에서는 “성실이란 하늘의 도이고, 성실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지극히 성실하면 움직이지 않은 자 없고, 성실하지 않으면 능히 움직일 수 있는 자 없다.” 했는데, 이때의 성은 진실하여 속임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또 荀子 不苟篇에서는 “대저 성이란 군자가 지키는 것으로 政事의 근본이 된다.”고 했다.

이것은 誠으로써 덕행의 기초를 삼은

것이다. 이러한 덕목으로서의 성을 체계화한 사람은 이고(李翱)와 周敦頤이다. 이고는 그의 復性書에서 “성이란 성인이 본성으로 하는 것이다. 그 본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현인이 좇아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이며, 끊임없이 노력하면 그 근원에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천명의 본연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이라는 것이다.

주돈이는 通書 誠上에서 “성이란 성인의 근본이다. 여기서 근본은 본성을 의미한다. 이 본성을 따라 행하고 성을 보존하고 성을 다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도덕 수양을 행함으로써 착한 본성을 회복하려고 했다. 誠下에서는 “성은 仁義禮智信 五常의 근본이며, 百行의 근원”이라고 하여 성인이 성인되는 까닭은 성에 있을 따름이라 하고, 오상을 비롯한 모든 덕행은 성으로써 기초를 삼는다고 하고 있다.

또 성은 寂然不動한 것으로 신묘하여 感而遂通의 묘용이(妙用)이 있다고 보았다.

이밖에 주희는 朱子語類에서 “성이란

理라 했고, 中庸集註에서는 “성이란 진실 무망(眞實無妄)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성은 인간의 도덕 수양 공부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성은 천도와 인도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천도와 인도에 공통적인 것이며, 그것들을 관통하여 天人合一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성인이다.

율곡의 誠說

우리나라에서는 李珥의 誠說이 유명하다. 栗谷全書에서 “성이란 하늘의 실리이며 마음의 본체이다.”, “성은 無爲이며 未發”이라고 했다. 또 성인이 성인된 까닭은 이 성을 완성했다는 데 있으며, 현인군자의 賢人君子된 까닭은 이 성을 깨닫고 이를 회복하여 그 덕행을 행하려는 데 있다고 했다.

그런데 군자는 성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단계이다. 따라서 이이는 “군자의 배움은 성을 독실하게 하는 것뿐이다. 성이 아니면 천리의 본연을 보존할 수 없다. 뜻에 성이 없으면 서지 못하고, 기질에 성이 없으면 변화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이이는 성의 실현에는 誠意 實心 誠身 至誠 등의 단계 또는 질서가 있다고 했다. 그가 생각하는 성의 최고 형태는 지성이다. 이이는 성을 논하려면 먼저 實理之誠과 實心之誠을 밝혀야 하며, 이것을 안다면 성

을 논할 수 있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실리라는 것은 天道 자체의 구현이며, 실심이란 순수한 천리로 되돌아감을 뜻한다. 이 마음을 실하게 하는 것, 즉 실리의 경지로 되돌아가는 방법으로는 不欺와 謹獨을 말한다. 따라서 이이는 “성이 아니면 천리의 본연을 보존할 수 없고, 경이 아니면 한 몸을 주재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고 하여 성과 敬을 성학의 근본으로 했다.

한편 丁若鏞은 大學과 中庸의 首功을 성이라고 보았다. 정약용은 중용 전반부에서 성이란 용어가 쓰이지 않고 있으나 慎獨이 성이며, 戒慎恐懼가 성이기 때문에 성으로 일관되었다고 보고, 주희의 ‘하늘이 만물을 생성하는 이치(上天生物之理)로서의 성은 무의미하다고 하여 주희와는 다른 해석을 했다.

河西 金麟厚의 出處義理와 道學世界

이중범(조선대 교수)

1. 머리말

다음은 하서의 연보이다.

- 1510년(중종 5) 7월 19일, 장성군 황룡면
맥호동에서 출생
1527년(중종 22) 신재 최산두에게 배우고
눌재 박상을 배알함
1531년(중종 26) 22세, 사마시 급제, 성균관
입학
1540년(중종 35) 31세, 문과급제
1543년(중종 38) 홍문관 부교리, 옥과현감
1544년(중종 39) 중종 붕어(11월) 인종 즉위
후 제술관으로 상경, 귀향
1545년(인종 1) 36세, 인종 붕어(7월)
병가(12월)
1546년(명종 1) 6월 『효경간오발』
1548년(명종 3) 늦봄 순창 점암촌에 우거,
훈몽재 낙성
1549년(명종 4) 『대학강의발』(2월) 정지운
만남(8월), 부친상(10월)
1551년(명종 6) 7월 모친상
1555년(명종 7) 백화정(百花亭) 낙성
1557년(명종 12) 『주역관상편(周易觀象篇)』

『서명사천도(西銘事天圖)』

지음

『숙흥야매잠해(夙興夜寐
箴解)』 논변에 참여

1559년(명종 13) 이항과 기대승의 ‘태극음
양논쟁(太極陰陽論爭)’ 참여

1560년(명종 15) 51세, 1월 별세

세상 떠날 때의 명종실록의 줄기가 다음
과 같다.

전 홍문관 교리 김인후(金麟厚)가 졸(卒)
하였다. 자(字)는 후지(厚之)요, 자호(自
號)를 하서(河西)라고 했으며, 담재(湛齋)
라고도 했는데, 장성(長城) 사람이다. 타
고난 자품이 청수(淸粹)했다. 5~6세 때
에 문자를 이해하여 말을 하면 사람을 놀
라게 했고, 장성하여서는 시문을 지음에
청화하고 고묘(高妙)하여 당시에 비길 만
한 사람이 드물었다. 사람들은 그의 용모
만 바라보고도 이미 속세의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다. 술과 시를 좋아했고, 마음이
관대하여 남들과 다투지 아니했으며 그가
뜻을 둔 바는 예의(禮義)와 법도를 실천

하려는 것이었으므로 감히 태만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모르는 자는 세상 물정에 어두운 것이 아닐까 의심했다.

3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가 되고 부수찬(副修撰)으로 전직(轉職)되었다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외직(外職)을 청하여 옥과현감(玉果縣監)에 제수되었다. 얼마 되지 않아 중종(中宗)과 인종(仁宗)의 국상(國喪)을 만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훼손(毀瘠)하여 을사년 겨울, 마침내 병으로 사직하고 사제(私第)로 돌아가 조정의 전후 제수에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사제에 거처하면서부터는 성현(聖賢)의 학문에 전념하여 조금도 쉬지 않고 사색하고 강구하며 차례대로 힘써서 실천하니, 만년에는 조예(造詣)가 더욱 정밀하고 깊었다. 《가례(家禮)》에 유념하되 상례(喪禮)와 제례(祭禮)를 더욱 삼갔으며, 시제(時祭)와 절사(節祀)를 당해서는 비록 않는 중이라도 반드시 참석했고, 시속의 금기(禁忌)에 흔들리지 않았다. 자제를 가르칠 적에는 효제·충신을 먼저하고 문예(文藝)를 뒤에 했으며, 남과 대화를 나눌 때는 자기 의사를 표준으로 삼지 않았으나 한번 스스로 정립(定立)한 것은 매우 확고하여 뽑아낼 수 없었고 탁월해서 따를 수가 없었다. 해서와 초서를 잘 썼고 필적은 기굴(奇崛)했다. 51세에 졸했다.

《하서집(河西集)》이 있어 세상에 전한다.

1653년 보성의 산림학자 우산 안방준은 “호남에서 고봉·일재·미암 그리고 우리 선생이 학문으로 이름이 높는데, 하서의 학문과 행실, 절의와 문장은 탁월하여 누구도 미칠 수 없다.” 한 바 있으며, 1669년 하서에게 文靖의 시호가 내려졌을 때 우암 송시열은 신도비에 “국조 인물의 품평은 도학·절의·문장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이를 아우르며 치우치지 않은 분은 거의 없었는데, 하늘이 우리 동방을 보우하사 하서 김선생을 내셨으니, 이에 거의 가깝다고 하겠다.”고 적었다. 그러고서 1686년 「하서집」 중간본 서문에 우암은 이렇게 적었다. “제 몸을 스스로 폐기하고 자취는 없어졌음에도 더욱 이름이 전해지는 까닭을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야 엿볼 수가 없고, 능변의 선비라도 깊고 아득한 묘(妙)를 선뜻 한마디로 찬양하지 못할 분...’ 하서의 ‘微言大義’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조가 하서를 문묘에 올리며 명확하게 밝혔다. “문정공(文靖公)은 우리 동방의 주자(周子)이다. 이정(二程)과 장자(張子)·주자(朱子)를 먼저 문묘에 배향하였는데 주자만 종사의 반열에서 누락되게 한다면 두 정자와 장자·주자의 마음이 편하겠는가, 편치 않겠는가!”

濂溪 周敦頤(이) 「(1017~1073)는 누구인가? 하서는 1540년 겨울 殿試 대책에 이렇게 적었다. “복희·신농 이하 삼대 이상은

한결같은 심법(心法)으로 도를 밝히고 교화를 행하였습니다만, 주나라 쇠퇴하며 정치와 교화가 어긋나자 공자는 유덕하였지만 지위가 없어 글로서 전도하였을 뿐, 이마저 자사(子思) 맹자(孟子) 이후 인멸하여 진유(眞儒)가 나오지 않았다가 백제 이후 염계의 주자가 분연히 버리를 잡고 빗장을 열자 이정(二程) 형제가 그 주장을 받으면서 끊겨진 계통을 잇낼 수 있었습니다.”

2. 군신공치론의 연원과 하서의 포부

공자는 천하를 품었다. 일찍이 장저(長沮)와 곽닉(桀溺)이 공자를 비난하자, 탄식하기를 “새나 짐승들과 무리 지어 살 수는 없는 법이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살지 않고 누구와 함께 살겠는가. 천하에 도가 있다면 내 굳이 바꾸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鳥獸不可與同群 吾非斯人之徒與而誰與 天下有道 丘不與易也]”라고 하였다(논어, 微子). 또한 “군자는 天下의 일에 전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없고 전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없다. 오직 義를 따를 뿐이다[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 하였다(논어, 里仁).

맹자 역시 양혜왕(梁惠王)에게 “즐거워하기를 천하의 일로써 하고 근심하기를 천하의 일로써 하고서도 왕 노릇 못할 자 없다[樂以天下 憂以天下 然而不王者未之有也]”고 유세하였으며, “군자는 임금의 도

를 감당하도록 이끌어 인에 뜻을 두게 하는데 있을 뿐”이며, “大人이라야 임금 마음의 잘못을 고칠 수 있다”고 하였다.^{주1)} ‘引君當道’와 ‘格君心’이었다. 이에 그치지 않았다. 군주의 과오를 반복하여 간쟁하여도 듣지 않으면 異姓卿은 나라를 떠나고 宗室卿은 임금의 자리를 바꾸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去國 및 易位를 유세하였던 것이다.^{주2)} 이러한 事君論의 바탕에는 세속 권력의 등급에 대한 진단 즉 “민이 귀하고 社稷은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 그러므로 백성에게 믿음을 얻으면 천자가 되고, 천자에게 믿음을 얻으면 제후가 되고, 제후에게 믿음을 얻으면 대부가 된”다는 ‘民貴君輕’이 깔려있었다.^{주3)}

그런데 송나라 范仲淹(989~1052)은 “사대부는 천하를 자신의 임무로 삼는다” 하였고, 文彥博(1006~1097)은 “군주는 사대부와 더불어 천하를 다스려야 함”, 程頤(1033~1107)은 “천하의 안위는 재상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한편 王禹偁(945~1001) 歐陽脩(1007~1072) 李綱(1083~1140)은 봉당론에서 ‘봉’을 긍정 발양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마침내 朱熹(1130~1200)는 승상 留正(1129~1206)에게 多衆之黨을 역설하며 인군위당을 권고하였다. 이때 주희는 ‘人主以論相爲職 宰相以正君爲職’의 담론을 제시하며, 臣道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대신은 천하사를 알아서 때에 맞춰 실

행에 옮기는데 있어서 지식과 역량을 널리 강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조금만 방심하면 위로는 임금을 어리석게 보아 더불어 仁義를 말할 수 없고, 아래로는 백성을 비루하게 여겨 교화를 할 수 없고, 중간에서 사대부를 가볍게 여겨 사업을 共成할 수가 없다.”

이러한 신유학, 성리학의 정치사상은 1289년(충렬왕 15) 安珣(1243~1306)이 주자의 서적을 처음 들여오고 白頤正(1247~1323)이 성리학을 탐구하면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주자성리학을 원나라 국정교학으로 끌어올린 許衡(1209~1281)이 세상 떠난 직후였다. 여기에는 원간섭기 고려지식인 사대부의 현실타개 의식이 뒷받침되었지만, 전라도 徐稜 등의 유교윤리에 입각한 가훈, 향당 윤리 보급의 분위기를 간과할 수 없다.^{주4)} 이에 따라 ‘五經笥’ 李晟(1251~1325), 易東 禹倬(1263~1342)이 경학을 새롭게 이해하였으며, 權溥(1262~1346)가 「사서집주」를 간행 보급하면서, ‘성리학을 즐겨하지 않았지만’ 경학·사학·사장에 능통한 李齊賢(1287~1367)과 그 문인 李穡(1328~1396)이 성균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학풍을 점화할 수 있었다. 이때 尹澤(1289~1370)은 陳德秀의 『大學衍義』를 공민왕에게 권장하였으며 田祿生(1318~1375)은 『古文眞寶』를 간행 보급하였다.

이러한 흐름 위에서 정도전은 맹자의 引

君當道와 格君을 “君子之事君也 務引其君以當道 至於仁而已 惟大人爲能格君心之非”라고 하는 하나의 문맥으로 정리하면서, 주자의 ‘人主以論相爲職 宰相以正君爲職’을 인용하며 재상정치론을 제창하다가, ‘挾私欺君’의 철퇴를 맞았다.^{주5)} 정도전의 재상정치론은 나주 유배 시절 친구에게 보내는 글에서 공자의 ‘大人以道事君’을 ‘宰相以人事君’으로 변용하였음을 보면, 일찍부터 숙성되었다고 생각된다.^{주6)}

이러한 도학정치론은 기묘사림에 의하여 숙성 발휘되었으니, 하늘이 백성을 위하여 임금을 세우고 신하를 두었다는 ‘君臣爲民設論’을 환기하며, 內聖外王의 君主聖學 및 君臣共治를 제기하며 ‘格君心’과 ‘引君當道’를 자임하였다. 또한 「소학」을 전파하고 『朱子增損呂氏鄉約』을 국가정책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農書」 『蠶書』 『辟瘟方』 「瘡疹方」 등을 보급하였다. 한편 『朱子大全』 『朱子語類』 『傳習錄』을 비롯한 송·원·명의 주요 저술을 수입하며 학술 기반을 다지면서 사슴의 혁신을 추진하며 김굉필은 제외되었지만 정몽주를 문묘에 올리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았다. 變法, 更張論을 제기하며 『經國大典』 체제의 개편으로 귀결될 수 있는 賢良科를 관철하고, 의도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限田法을 제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昭格署 철폐와 功臣改正을 거치면서 군주와 훈구외척의 반격으로 퇴진하였다.

기묘사림의 혁신정치는 비록 실패하였지만 위로는 군주를 견인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얻으면서 선비의 의무와 자세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준비된 기획과 같았다. 그리고 이러한 기획을 왕권, 대신이 아닌 삼사언론을 무기로 백성들의 각성과 안돈을 추구하는 敎民, 安民策과 같이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일종의 사상문화운동이었다. 그만큼 수신도덕을 자임하는 선비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강력하고 매력적이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한 제도 개혁을 실천하려고 한 점에서 변법적 정치운동이었다.

다음은 하서가 문과에 급제하기 전 이름을 알 수 없는 벗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나 같은 자는 체(體)를 밝히는 학도도 아니요 용(用)에 맞는 재주도 아니며 소싯적에 취업(就業)하였으나 시골구석에 묻혀 있어 사우(師友) 견문의 유익이 없고 단지 병려(駢儷) 주대(倣對)의 작(作)을 배워 세상에 이름을 얻었던 것이외다. 응교(應敎) 기준(奇遵)이 교리(校理)로 있을 적에 마침 이웃에 와 나를 불러보고 돌아가면서 데리고 가려 하다가 못했는데 돌아가서는 대내(大內)에서 내려준 붓을 보내 주곤 하였었지요. 후에 소학(小學)의 글을 모재(慕齋) 상공(相公)에게 강하자 상공을 한번 보고 왕원지(王元之)의 소우(小友)에 대한 고사를 들어 그 막좌(幕佐) 김공에게 말하여 칭찬을 받은 일이 있었으며 이윽

고 벗으로는 김약묵(金若默)을 얻어 비로소 학자란 당연히 추향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듣고 마음에 자못 기뻐으나 어떻게 구해야 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스승으로는 최신재(崔新齋)를 얻어 모시어 그 의용(儀容)의 명랑하고 빼어남과 사기(詞氣)의 크고 넓음에 탄복하였으며 곧 박눌재(朴訥齋)를 뵈게 되어서는 그 언론이 격려(激勵)하고 움직임과 침이 정숙(整肅)하여 또 사람을 감동케 하였으니 그 또한 말로 전하고 입으로 줌을 기다리지 않고도 혹 양심이 계발(啓發)된 바 있었습시다. 물러나와 우연히 진서산(眞西山)의 독서기(讀書記)를 열람하여 증민(蒸民) 첫째 장의 뜻을 논한 대문에 이르러는 비로소 하늘과 사람은 하나로 돌아감과 동시에 실리(實理)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음을 깨닫고서 내심에 학자가 마땅히 종사할 것은 저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래서 대략 주려(朱呂)의 한천(寒泉)의 편을 섭렵하고...”^{주7)}

하서는 성균관에서 지내면서 金立(1497~1583)을 송별하며 다음과 같이 적었다.^{주8)}

이십 되던 시절에 옛 글 읽고서,
弱歲讀古書
책을 덮고 그 사람을 생각했네.
掩卷思其人
그 사람을 보자도 볼 수 없으니
其人不可見

성인의 도 오래도록 문힐 수밖에.

聖道嗟久湮

없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있어

不亡者猶存

만년이 하루와 꼭 한가지구려.

萬古同一晨

우리 동방은 옛날 기자의 봉지,

吾東舊箕封

예의 제도 이미 다 갖추어졌네.

禮義已條陳

수천 년을 지나는 적막한 속에

寥寥千百載

참다운 유사라곤 별로 없더니.

儒士無其真

하늘이 나라 운을 일으키고자

皇天欲興運

정학(正學)이 나날이 새로워졌네.

正學惟日新

이어내려 조부에 미치게 되자

綿綿及乃祖

그 근원을 거슬러 나루를 났네.

溯源開其津

조정에 진용되어 시행을 해서

縱未進而行

민생을 경제(經濟)하진 못했지만은

經濟乎生民

당년에 천이(踐履)하던 그 실적들이

當年踐履實

몸에 남아 보존 된 것 얼마이겠나.

幾多存諸身

오늘에 이르도록 사숙(私淑)에 힘입어

至今賴私淑

사문(斯文)이 더욱 더욱 성했느니라.

斯文益彬彬

전가(傳家)하는 어진 이 대대로 있어

傳家世有賢

청진(淸塵)을 뒤따르니 기쁘군 그래.

喜與追淸塵

태학의 문 앞에서 그대 보내니

橋門此送君

가슴속의 서린 회포 못 다 펴노라.

欲盡意未伸

김입은 한훤당 김광필의 손자였다. 일찍부터 한훤당의 얼마 남지 않는 글을 읽었던 것인데, 특히 한빙계에 감동하였음이 틀림없다.

한편 하서는 趙希尹과 친하게 지냈는데, 그가 죽었을 때 제문에 “그대의 유부(猶父)께선 한 세상의 석유(碩儒). 경세제민에 뜻을 두고, 얹고 가까운 일은 꺾하지 않고, 흐린 물결 맑게 돌려, 요순시대 이루시려다, 때와 운이 어긋나버린...”라고 적었다. 유부는 바로 정암 조광조였다.

하서는 과거의 『古今治亂之機』를 묻는 대책에서 “제 생각으로는 기화가 하늘에 있는 것은 굳이 그 항상 같음을 기필하지 못하지만, 사리(事理)가 사람에게 있는 것은 진실로 능히 항상 그 마땅함을 얻어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늘에 있는 것도 어

찌 응하지 아니할 리 있어오리까? 그러나 역시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몸소 행하고 마음으로 터득하여 털끝 하나라도 다하지 아니함이 없는 연후라야 신명(神明)에게 통하고 상제(上帝)에게 부격(孚格)되어 천지가 바로 자리 잡히고 만물이 육성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임금은 홀로 주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임금은 반드시 우임금을 얻은 뒤에 지평천성(地平天成)의 공을 이룩하였고, 무왕은 주공의 도움이 있어 크게 계승한 공을 달성하였으며, 신하로는 능히 스스로 전제(專制)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맹(孔孟)은 그 덕을 지니고도 그 지위가 없어 요순(堯舜)의 정치를 돌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요임금과 무왕같은 임금은 있으나 대우(大禹)와 주공 같은 신하는 없으니 이는 확실히 우리 선비로서 깊이 부끄러워할 바이며, 공맹의 불우(不遇)가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믿지 못하는 바입니다. 이제 삼왕(三帝三王)의 도를 밝히고 공맹의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여 성주(聖主)를 보좌하고 화육(化育)의 공에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묘당(廟堂)의 여러 대인(大人)으로부터 비롯되리라 믿사옵니다.”^{주9)}

군주 일심과 현신의 보좌, 군신공치론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공부하는 선비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道學正傳」의 대책에 적었다. “선비로서 배우는 자들은 화려한 문장을 숭상하고 경전의 장구를

듣고 외워서 겨우 얻은 것을 벼슬과 총애의 밑천 삼을 뿐, 이름을 내고 관직에 나가면 이마저 팽개치니 풍속이 어찌 아름다울 것이며 어찌 백성을 제대로 이끌겠습니까! 사람이 제 몸을 사사롭게 하고 선비가 배움을 사사롭게 하니 마땅한 도를 등지지 않는 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당대의 학풍 사습을 통렬하게 비판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배움[學]의 출발이 출발라야 한다. “심성을 함양하여 근본을 세우고 이치를 연구하고 사물에 나아가 실제의 적용에 미치려면, 마음에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주인을 세우는 일 즉 중심을 잡는 것은 다름 아닌 ‘경(敬)’이었다. 이렇게 풀었다. “한 몸을 주재하는 바는 마음이며, 마음으로 하여금 몸을 주재할 수 있게 하는 바는 경입니다. 무릇 일은 이치 밖에 있지 않고 이치는 실로 마음에 갖추어져 있으니 경으로 마음을 보존하고 이치를 밝히는 것입니다.”

굳이 줄이자면 ‘주경존심명리(主敬存心明理)’이겠는데, 『대학』 강령의 첫 구절 마음의 밝은 덕을 발휘하는 ‘명명덕(明明德)’은 마음을 경에 두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마쳤다. “바람이 처마를 스치는 짧은 시각이라 하나에 끌려 많은 것을 빠뜨렸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명께옵서는 우선 유신(留神)하옵소서.”

하서는 병과 3위, 6/19위였다. 장원은

년 전 과거사의 시비 규명, 기묘인의 복권을 주장하였던 유생상소의 주인공 윤희성이었으며, 을과 1위 아원(亞元)은 동서 김약목이었다. 이때 소과 동방으로 열세 살 위였던 김희삼(金希參)도 ‘늙고 병든 어머니 모시며 과거를 접었다가 작년 가을 홀연히 유학’하여 급제하였다. 김희삼이 고향 성주로 급히 돌아가자 5언 36행 180자 장편으로 송별하였는데 그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주10)}

어린이들 대문에서 기다릴 테니,
童稚政候門
문지방 거미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리라.
寧復愁蠭蛸
우리 임금 기필코 요순을 만들고,
終期堯舜君
우리 동포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하세나.
所得均同胞

일찍이 아들 셋을 두었던 김희삼은 작년 가을 떠나오며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막내-훗날 선조 치세 경세가 김우옹(金宇顒)-을 얻었던 터라, 전별사를 받아들이고 가며 얼마나 흐뭇하였을까?

3. 환해의 고뇌와 기묘의리의 천명

하서는 어린 시절 의젓하였고, 장성하며

활달하고 유머가 넘쳤으며 만남을 반가워하고 헤어짐을 아쉬워하였다. 특히 이별장은 벗들의 심금을 울렸다. 위에서 보았듯이 ‘세속 티끌을 벗은 수려한 용모에 술을 좋아하고 시를 즐겨하면서도, 물정에 어두운 듯 남과 겨루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벼슬하면서도 무척 진중하고 과묵하였다. 실로 심사가 복잡하였던 것이다.

국왕이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척이 정사를 농단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전한의 무제 시절 회양태수로 내려가서 박명(薄命)하였던 급암(汲黯)을 추모한 「박회양부(薄淮陽賦)」에 풀었다.^{주11)} 무제는 ‘겉으로 인의를 베풀듯 하지만 속으로는 욕심 많아서 삼대의 치세를 본받을 수 없다’며 간언하는 급암을 처음에는 옥에도 가두었지만 그래도 직언을 멈추지 않자, 품계를 올려주고 먼 고을 회양의 태수로 보내버렸다. 무제의 심사를 들여다보듯 적었다.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고 풀어주었으나
設緩辭而慰解
어찌 속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었겠나?
豈由中之實言
내직을 맡기지 않고 외직으로 내보낸 것은
不任內而任外
숨겨진 속내가 훤히 비친 일.
自可見其微意
군주의 마음 잘못을 바로잡자는 일념이
使格君之一念

후미진 땅에 버려지고 말았군 그래.
終委廢於僻地...

결국 불행은 조정에서 경륜을 펴지 못하고 일찍 죽은 급암이 아니라, 간쟁을 싫어한 한무제의 몫이었다. 아침꾼 광광(藿光)과 그의 음부(淫婦)는 어린 후사(後嗣)를 시해하고 이로부터 제국은 급속히 기울기 시작하여 마침내 외척 왕망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직언이 배척당하고 인재가 팽개쳐지는 역사가 아팠던 것이다. 그래도 좀처럼 내심을 드러내지 않았고, 누군가를 보낼 때도 성균관 시절과 같은 걱정 동정을 보이지 않고 차분하였다.

광주 출신 유수(柳洙)가 금강 아래 옥구현감으로 나갈 때였다.^{주12)}

“남도가 잇달아 굶주린다는데, 갯가 형편은 더욱 절박하다오. 백성에게 쌀 한 톨 남지 않았으니, 원님이라고 별다른 재주 있겠소만... 옛 사람 치적을 살피며, 때때로 정령을 보태고 고쳐내면, 큰 도회도 살릴 것인데, 하물며 작은 고을임에랴.”

또한 풍기군수로 나간 주세붕이 궁민을 구제하고 백운동서원을 창설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즈음일 것인데 반가움은 차분하였다.

“봄바람은 여기저기 불어오고, 푸른 풀 가득 돌아나는구려. 요순임금은 삼천년 전 이견만, 얼음 담은 병 마냥 무척 맑아라. 어디 있건 유연하게 즐거움 찾으니, 당신

이름 천지와 더불어 흘러가리라.”^{주13)}

그런데 나주 출신 동갑으로 별시문과에서 장원하였던 이만영(李萬榮)이 김제평야 금구의 현령으로 내려갈 때는 달랐다.^{주14)}

시월 서릿바람 나그네 옷 파고드는데,
十月霜風入客衣
천릿길 고향 가는 임을 전송하네.
故山千里送君歸
그대 가는 고을에서 고개 넘으면 금오산이라,
金鰲嶺外君應過
나는 억울하게도 비조를 따르지 못하는구먼.
恨不身從去鳥飛

금오산은 장성의 진산, 갈재(蘆嶺) 건너 고향집이 비쳤던 것이다.

1542년 한겨울 천재지변이 잇달았다. 햇무리 자욱한 날이 계속되고 밤에는 불같은 운기를 품은 유성이 자주 날고 여러 군데 지진이 있었다. 또한 아내가 간부와 공모하여 남편을, 자식이 아버지를, 딸이 어미를, 노비가 주인을 죽이는 패륜 변고도 유달랐다. 질투를 못 이겨 남편의 첩을 죽인 부인도 나왔다. 정월 초하루는 일식이었다. 사람들은 천변과 재앙이 음기가 성하고 양기가 미약하여 생기는 것이라고 혀를 찼다.

이즈음 지난 가을 일본사신을 접견하며 배앓이로 고생하였던 김안국이 중국에 올릴 표전(表箋)을 적고서 네댓새를 아무 것도 먹지 못하였다. 최후의 언행이

전한다. “하늘의 기상을 보니 국가 형편이 위태롭게 되었다. 장차 외척이 선비들에게 화를 전가시켜 많이 살해할 것이니 국가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비록 망하지 않더라도 참화를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병으로 일어나지 못하니 보지 않을 터이지만, 너희들은 함부로 화기(禍機)를 건드리지 말라.”^{주15)} 1543년 1월 4일, 향년 66세.

김인후는 통곡조차 할 수 없었다. “지성으로 임금 마음 돌려놓고, 숨긴 덕은 빛나고 지략은 신통하였지요. 나라의 안위가 걸린 이때, 왜 좀 더 머물지 않으신가요?” 또한 “호남과 영남에선 민속을 돌려놓았고, 중화와 이적을 덕으로 감복시켰지요. 철인과 헤어지는 오늘, 조야가 모두 넋을 놓고 있대요.”^{주16)} 경세철인을 잃은 나라, 앞날이 슬프고 불안했던 것이다.

그리고 사흘, 1월 7일 한밤중 동궁에 불이 났다. 세자의 서연이 열리던 자선당(資善堂)을 태우고, 임금의 연침인 강녕전(康寧殿)으로 번질 참에 중간 길목의 승화당(承華堂)을 헐고서야 불길이 잡혔다. 화재도 큰일이었지만 대처하는 모습이 한심하였다. 입직 군사는 모이지 않고, 궁인은 울부짖고 소란스럽게 허둥졌는데, 이틈에 시정의 잡인까지 몰려들었으니, 실로 아수라장이었던 것이다. 윤원형의 도발이라고 수군댔다.

화재가 있던 아침 대사간 이임(李霖)이

밝혔다. “이번 화란은 너무 가까이 끼고 어루만져주니 어느덧 버릇없이 날뛰고 깔보기 때문에 일어났다.” 중궁의 지친을 지목한 것이다. 그러나 즉각 체직, 세자는 자책하였다. “덕이 부족한 몸으로 참람하게 동궁에 있으니, 하늘의 거울이 심히 밝아 재앙을 내린 것이다.”^{주17)}

얼마 후 이임의 후임 대사간 구수담(具壽聃)이 아침 경연에서 ‘주상의 마음이 나라의 근본임’을 사되며, ‘윤임을 대윤(大尹)이라 하고 윤원형을 소윤(小尹)이라 하는데 각각 당여를 세웠다’는 풍문을 읊었다. 국왕은 ‘해괴하고 경악스러운 사론(邪論)을 발본색원할 것’을 하였지만 실상은 없었다.^{주18)}

동궁화재의 진상은 빠르게 묻혔다. 임형수는 분통을 터뜨렸다. “한두 놈만 곤장을 치면 진정될 것이다.” 아우에게 말하였는데 이웃에 전해지는 바람에 빠르게 퍼졌다. ‘한두 놈’은 윤원로·원형 형제였다.^{주19)}

한밤중 비바람이 거셌을 때였다. 홍문관 수찬 김의정(金義貞)이 김인후에게 건넸다.^{주20)} “지난 날 일찍이 옥당 한칸 차지했던 신하가, 금란(金蘭)의 벗이 되어 나라에 몸을 바치게 되었네. 한밤중 비바람 그침 없으니, 마음 상한 사람 두셋은 있으리라.”

1526년 급제하고 줄곧 홍문관에 봉직하다가 심정의 손자를 사위 삼은 탓에 김안로가 물러나자 복직하였는데, 김인후보다 열다섯 연상이었다. 그런데 김의정과 몇

사람이 김인후에 대하여 나눈 대화를 전해 들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어떤 벗에게 보낸’ 절구 2수가 있는데 읊시 한편으로 읽어도 좋다. 이렇게 시작한다.

“화산(花山)의 김학사(金學士)께 여쭙노니, 지난번 둘러앉아 무슨 이야기를 하었소?” 화산은 경상도 예천, 김의정의 고향이었다. 그들은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주21)}

내가 연숙하다니 부질없는 조롱이요,
名吾軟熟空嘲諑
혼명에 의탁하니 숨씨 좋은 피론이라.
自托昏冥巧避論
경악의 논사에 그대가 힘들이면,
經幄論思須爾力
중당 저 멀리서 쌍벽을 상상하리라.
中堂遙想壁連雙

약간의 해설이 필요하다. 유화하고 원숙하다는 연숙(軟熟)은 남에게 거슬리는 곧은 소리를 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혼명(昏冥) 즉 물정에 어두워 공론을 피하고 있다고 하였으니 일견 김인후에 대한 폄훼였다. 그러나 다음 구절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경악(經幄)의 논사(論思) 즉 경연에서 임금과 학문을 논하고 계책 건의에 노력하면 중당(中堂) 즉 의정부의 쌍벽(雙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음이다. 시신(侍臣)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인후는 이렇게 응대하였다.

작은 구슬이치 불러 앵무새 술잔 가져오라 하여,
應呼小吏傳鸚鵡
취한 채 남녘 들창에 기대어 저문 강을 흘기겠소.
醉倚南窻睨晚江

실제 자신을 감춤이었다. ‘남창’ ‘저문 강’이 아릿하다.

1543년 초여름 4월, 김인후는 홍문관 박사(정7품)로 승진하며 세자시강원의 설서(設書)를 겸직하였다. 소과와 대과 동방인 김희삼, 노연령과 처음 시강원에 들어선 날, 동궁 뜨락에 지난 가을 국화 화분이 앙상한 채 그대로 있어 읊었다. “시월 서리에 하얗게 덮였으니, 고운 꽃망을 어찌 추위를 견뎌겠나? 줄기 가지 모두 시들고, 꽃잎과 잎사귀 거의 말랐네. … 그래도 곧은 뿌리는 길이길이 굳세어, 해마다 동궁 난간을 지킬 것이야.”^{주22)}

당시 김인후는 한 달 열흘을 궁궐의 경연청과 시강원을 오가며 도타운 대우를 받았다. 훗날 적었다. “동궁의 시강관을 겸직하여, 한 달 열흘을 대궐에 있으며, 두 임금 두터운 은총이 겹쳐서, 술 내리고 선물 나누어 녹봉이 부끄러웠네.”^{주23)}

세자의 생각이 깊었고 거동은 신중하였다. 서너 살 원자 때부터 이자·조광조·기존·이행 등에게 ‘초학자에게 절실한 가언(嘉言)과 선행(善行)’을 익힌 이래 오래 경사를 익혀 조예가 뛰어났다.^{주24)} 특히 김인후에게 각별하였는데, 교서관에서 갓 간

행한 『주자대전』을 선사하고, 하루는 직접 그린 묵죽도(墨竹圖) 한 폭을 내렸다. 바위에 비스듬히 걸친 대나무에서 위태로운 세월을 부둥켜안은 고뇌를 읽었을 게다. 이렇게 적었다.^{주25)}

뿌리 가지, 마디 잎사귀는 정갈하고 촘촘하여라,
根枝節葉盡精微
돌을 벗 삼는 정신으로 주위를 채우셨네.
石友精神在範圍
신성한 영혼이 조화와 짝하심을 비로소 깨달았
나니, 始覺聖神侔造化
천지랑 한데 뭉쳐 어짐이 없으시겠네.
一團天地不能違

우주의 조화를 헤아리는 공부, 그리고 마음은 천지를 안으셔야 한다, 한 것이다. 세자는 왜 묵죽도를 내렸을까? 예로부터 대나무의 ‘단단하고 곧고 비고 매듭 있는[固直空節]’을 좋아한 선비들이 많았는데, 특히 왕희지(王羲之)의 아들 자유(子猷)는 대나무를 벗 삼아 ‘차군(此君)’으로 불렸다. 이때 세자 스물아홉, 김인후 서른넷이었다.

이해 늦여름 6월 홍문관 부수찬에 오른 김인후는 홍문관 차자(筴子)를 준비하였다. 동궁화재의 진상이 흐지부지 묻히는 것을 그대로 넘길 수 없었던 것이다. 먼저 최근의 천변과 재난, 민생 곤궁과 국가 피폐 나아가 춘궁의 열화(烈火)는 인사가 잘못된 하늘의 꾸지람이며 우연 아닌 필연

의 인재(人災)라고 규정하였다. 왜 그런가? 군주의 수신과 마음 공부가 미진하고 착한 선비, 어진 신하가 없기 때문이었다.

“전하께서 학문을 좋아하시고 선함을 즐기신 듯싶으나 천지간에 미답지 못하고, 과실을 살피시는 것 같으나 몸과 마음이 각각이며,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닙니까?” 또한 ‘전하가 배양한 인재가 전하의 치세에 참화를 당하고 벌써 이기(二紀)나 되어도 하늘의 해[天日]을 비추지 않아 민망하기 때문’에 “좋은 선비가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어진 인재는 임금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기(一紀)는 12년, 기묘인의 완전 신원과 복권을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동궁 화재의 허망함을 재차 언급하고, 이렇게 적었다. “고식(姑息)에 빠져 자강(自強)하지 못하고 허문(虛文)을 일삼고 실덕(實德)에 힘쓰지 않고 말절(末節)만 다스리다 본원(本源)이 맑게 하지 못하면, 장차 어떻게 천견(天譴)에 대응하여 인사를 바로잡아서 전위위안(轉危爲安)하고 전화위복(轉禍爲福)하겠나이까? 정책이 잘못돼도 고칠 수 없고, 그릇된 사람을 쓰고도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주26)} 여기서 멈췄다[此下缺].

‘홍문관 차자’는 올라가지 않았다. 홍문관원의 동의, 연명이 필요한데 쉽지 않았던 듯싶다. 국왕의 특지로 부제학을 맡았던 유진동(柳辰叟)은 ‘대운·소운설’이나 ‘전하의 가사(家事)’ 즉 궁중사는 물을 수

없고 물으면 폐단만 키울 것이라고 하였듯이 윤원형과 교제하던 참이었다.^{주27)} 홍문관원의 결원도 있었다. 홍문관 수찬 유희춘은 어머니를 모신다는 구실로 얼마 전 무장현감으로 내려갔고,^{주28)} 전한 나세찬은 왕명 받고 부여로 떠나야 했다. 「결옥(決獄)으로 부여 가는 나전한(羅典翰)을 전송하며」가 있다.

“옥사란 의심 있기 마련일진대, 판결일랑 경홀히 내리지 마소. 혹시라도 죄과가 실지로 있어, 놓아주기 어려운 처지라 해도, 남강에 밝은 해 저무니, 휘휘하게 쳐다볼 밖에. 건넌 술잔 있으면 좋으련만, 우리 언지(言志)는 덮어 두어야겠구려.”^{주29)} ‘언지’는 시를 말하지만 상소로도 읽힌다.

7월 19일은 생일, 이날 홍문관 당직이었는데 부친의 편지를 받았다.^{주30)}

생일에 힘들게 키워주신 노고를 생각하니,
言念劬勞在此辰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도록 부모님 배나 그리워,
晨興達夕倍思親
만리 밖 사골아이가 전하는 편지,
村童萬里將書至
허둥지둥 뜯자마자 수건에 눈물이 가득.
顛倒披緘淚滿巾

‘올 겨울 아버님 고희(古稀) 되시는데, 어찌하나?...’ 여러 생각도 겹쳤을 것이다. 이튿날 아침 경연에 나갔다.^{주31)}

지경연사(知經筵事)로 입시한 병조판서 이기가 군기시와 선공감의 관장이 노쇠하니 ‘연한을 채우지 않았어도 젊고 유능하면 발탁’하겠다고 건의하여 국왕의 승낙을 받아냈다. 자기 사람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또한 “명위와 등급이 있는 조정이라면 직책에 따라 터럭만큼도 침범하지 않아야 하는데, 요새처럼 상관을 능멸하는 하급자가 있고서야 어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명분과 기강은 나무랄 데 없지만, 감춤 없는 토론과 비판, 도덕과 정치의 일관을 추구하는 흐름을 차단하고자 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한다. 기실 자신들에게 비타협적 관료에 대한 경고였다.

이때 김인후가 나섰다. “근래 죽어도 죄가 남는 무상한 소인은 모두 복직되었는데, 일시 잘못이 없지 않지만 본심은 나라를 속이지 않은 자들은 상은(上恩)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숭상한 문자까지 폐기하니 지극히 미안합니다.” 복직된 소인은 심정·이항(李沆)이며, 상은을 입지 못한 죄인은 조광조·김식·김정·기준·윤자임(尹自任)·한충(韓忠)이었다.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낮고 작았다. 국왕이 승정원에 물었다. 작년 늦가을부터 도승지를 맡았던 홍섬이 아꼈다. “신도 미처 잘 듣지 못하여 사관에게 물으니 기묘인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틀 후 주장(晝講), ‘기묘사림의 완전 사면과 『소학』 『주자증손여씨향약』의 국가

적 장려'를 분명히 사퇴했다.^{주32)} 이때 좌 참찬 이언적이 거들었다. “사화가 일어나며 인심은 무너지고 풍속이 어지러워 사람들이 배우려 하지 않고 음식남녀의 욕심만 알아 비상한 이변이 자주 일어나니 역사에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이날 임금이 승정원에 전교하였다. “근래 세론과 상소가 모두 『소학』과 『향약』을 말하는데, 기묘년 소학과 향약을 한다는 자들은 겉치레를 숭상하고 내실에 힘쓰지 않았기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깔보고 천한 자가 귀한 자를 업신여기는 폐단을 일으켰다. 이후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쓰지 않은 것이지, 『소학』을 그르다고 여겨서 폐기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소학』은 인륜을 밝힌 글이니 전강(典講)할 때 강독하는 문제는 대신들이 의논하여 다음 합좌(合坐) 때에 아뢰도록 하라.”

『소학』을 국가의 강독 교재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향약은 여전히 ‘상하귀천을 어지럽힌 폐단’을 낳았고, 조광조 등은 아직도 ‘마음이 그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국가를 그르쳤던 자’들이었다. 이틀 후 이언적은 경상감사로 발령 났다. 모친 봉양을 구실로 사직을 아뢰었기는 하지만 내몰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주33)}

김인후는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예로부터 사나운 풍파에 쉽게 뒤집히는 벼슬살이는 시름[患]이 그치지 않아 환해(宦海)라 한다더니…. 장편 『환해(宦海)』가 있다.

^{주34)} ‘비구름 덮치고 덮쳐 넘실넘실 풍파로 뒤집히는’ 바다에서 정녕 무섭기는 용왕의 비늘을 건드리는 역린(逆鱗). “용안 보고 좋아하다 비늘이라도 건드리면 어찌겠나, 굴원이 정녕 죄가 있어 먹라수에 빠졌었겠나!…” 하다가, 이렇게 마쳤다. “차라리 한평생 구름 산 돌집에 엎드려 박전(薄田) 일구며 굶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처자식 이끌고 세상 밖에 노닐며 천석(泉石)에 방랑하며 난초 향내나 맡아야겠네.”

얼마 후 김인후는 추석 귀성의 말미를 얻고선 내친 김에 부모 봉양을 위하여 가까운 고을 수령을 간청하였다. 이황이 「귀성 휴가를 얻었다가 외직에 나가 부모 봉양할 수 있는 은혜를 간청한 수찬 김후지를 전송함」을 건넸다.^{주35)} 329자 장편, 이렇게 시작한다. “그대 보지 못하였는가? 북극 큰 바다 곤어(鯢魚)가 천익(天翼) 펼치고 봉새 되어, 구만리 바람 헤치며 어디로 갔는지를. 저 아래 여기저기 뱀새 무리, 오락가락 누릅나무 부딪치며 정말 즐겁다 하는군.” 그리고 성균관 만남을 회고하며 벼슬살이 허망함을 털어놓았다.

지난 날 반궁에서 그대와 노닐 적에,
我昔與子遊泮宮
한 마디로 도가 맞아 서로 흔쾌하였지.
一言道合欣相得…
우리에게 부귀는 뜬 구름이라,
富貴於我等浮雲

우연히 얻은 게지 내가 구한 게 아니로세.
偶然得之非吾求…
은혜와 영광이 겹쳐어도 정말 마땅치 않았는데,
恩榮合沓謬所當
어수선한 세월에 파랑마저 겪다니.
歲月紛綸閱江浪…

당시 이황은 궁중의 말과 사료를 감당하는 사복시 첨정, 얼마 후 성균관 사성으로 옮기자 역시 성묘를 빌미로 휴가를 냈다.

김인후는 옥과현감으로 내려오면서 지난 식년문과에 장원하고 금의환향 중이던 노수신에게 뜻을 보였다. “남북으로 갈리는 마당에 석별의 정에 빗장 지르지 말게나. 차라리 신선이 탄다는 누런 고니 될지언정, 어찌 가볍게 흰 갈매기를 본받을까? 사방에 보인 뜻이 남과 맞지 않아, 유유히 천릿길 간다네. 오르다보면 목격(目擊)이 많을 터이니, 더더욱 자조하여 고명을 이루시게나.”^{주36)}

사방에 보인 뜻 ‘사방지(四方志)’는 천하를 향한 큰 포부이지만, 『예기(禮記)』 「내칙(內則)」에 따르면 ‘세자가 태어나면 여섯 번 활을 쏘아 천지 사방에 알린다는 뜻’도 있다. 세자의 치세가 되면 뜻을 펼 수 있으려나, 하였음직도 하다.

4. 출처의리의 실천

1545년(인종 원년) 4월 초여름 옥과현

감은 제술관의 부름을 받고 중국 조문사의 입성에 맞춰 상경하여 모화관에 거동하여 조문사를 전별하는 임금을 뵈었다. ‘사방의 장막과 휘장, 임금의 옥련(玉輦)까지 온통 하얀 터라 무척 마음 아프고 쓰라렸다.’^{주37)} 이때 노수신에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어제는 분성을 만나고, 오늘은 과회(寡悔)의 글을 보았네. 마음속 생각은 멀고 가까움이 없는데, 하늘의 달은 비웠다 찾다가 하는군. 술을 끊으라는 경계는 이미 알겠네만, 만나는 마당에 여한을 남기진 않아야겠지. 초가지붕 처마 아래에서 지는 해[落日]를 우러르자니, 세상 앞길[世道]은 또 다시 어찌될꼬?”^{주38)}

분성은 金禧年, 과회는 노수신, ‘낙일’을 ‘금상(今上)’으로 읽으면 뜻이 분명하다. 망극지통(罔極之痛)을 걱정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5월 중순 옥과로 귀임하였다가 초겨울 병가를 내고 벼슬을 떠났다.

을사사화 당시 참담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주39)}

함초롬 원기 받은 아름다운 나무,
佳木涵元氣
우뚝 솟아 멀리 가지를 쳐들었네.
亭亭揚遠枝
위로는 해와 달의 빛을 받들고
上承日月光
이슬과 비 자양 삼아 화려하게 피어났구나.
雨露繁華滋

인풍이여 온누리에 떨쳐라,
 仁風振海宇
 만물이 우쭐우쭐 기뻐할지니.
 萬類方怡怡
 갑자기 눈과 서리 휘몰아치니,
 風霜忽飄薄
 곧은 등걸 시들고 꺾이는구나.
 直幹還摧萎
 구슬피 우는 못 새들아,
 衆鳥聲啾啾
 날고 날아 어디로 가려느냐.
 飛飛何所依
 날은 저물고 구름 피워 오르면,
 黃昏暮雲起
 주룩주룩 장마 비가 흠날릴 터인데.
 霖雨來霏霏

또한 강물에 떠내려가는 꽃망을, 무서운
 풍우의 무서움으로도 비유하였다.^{주40)}

춘광(春光)은 한 번 가면 다시 끌 수 없는데,
 春光一去不可攬
 예쁜 꽃은 멋모르고 늘어져서 물을 떠라가는구나.
 芳華冉冉隨流水…
 풍우(風雨)는 깊은 숲 붉은 꽃망을 남겨두지
 않으니,
 風雨不貸千林紫
 쓸쓸한 등산은 온통 푸른 이끼에 뒤덮이더라.
 林園蕭索綠苔萋…

그리고 ‘봄을 슬퍼하는 사람’이 되지 않
 겠노라며 마쳤다. 봄조차 싫다, 하였던 것
 이다. 이후 몇 차례 벼슬이 내렸지만 거
 부하였다. 그러나 출처의리를 자처하거나
 자신하지 않았다. 몇 편의 시를 소개한다.
 1547년 봄 「見政目」에서는,

병들고 이른 봄추위 때문이지,
 病怯春寒早
 출처의 어려움 탓이 아니라네.
 非關出處難
 양친은 벼슬 받기를 바라시고,
 雙親猶望幸
 향장(鄉長) 또한 말에 타시라 재촉하누나.
 鄉長亦催鞍
 억지로 일어나면 병이 더칠게고,
 強起愁添疾

고개 숙이며 배회하면 마음이 편안치 않구나.
 低徊恐未安
 평상에도 이렇듯 온갖 생각 꼬리를 무니,
 端居生萬念
 어떻게 하여야 시작부터 온전할까?
 何計始爲完

1549년 가을 성균관 전적이 제수되었을
 때 「기유년 가을에 짓다」에서는,^{주41)}

인생에 명이 있음을 무슨 의심이 있을까만,
 人生有命復奚疑
 초객(楚客)의 슬픔이라니 자잘하지 않으리?

屑屑何須楚客悲

서리 물든 온갖 나무 붉게 타오르고

萬木染霜紅爛漫

비에 씻긴 못 봉우리 푸르러 들쭉날쭉.

千峯洗雨碧參差

임금 은혜 누대에 걸쳐 태산처럼 무거운데,

君恩累世丘山重

이 몸을 얹어매는 모진 병은 언제 나올까.

病毒纏身歲月遲

해바라기 촌심(寸心)은 끝내 늙지 않았으니,

葵藿寸心終不老

티끌만한 정성이나마 간직하여 만년을 기약해야지.

涓埃庶保晚年期

한편 꿈을 기록하면서도, ^{주42)}

침묵과 발언이 다름마정 어찌 두 가지일까,

語默雖殊豈兩般

날카로움은 쇠를 끊고 향기는 난초라네.

斷金其利臭如蘭

얼마나 죽엽청주 잔에 담고

幾將竹葉杯中綠

달빛 아래에서 양춘곡이나 타야할 게야

時擬陽春月下彈

‘양춘곡(陽春曲)’은 굴원의 제자 송옥이 부른 노래로 쉽게 뜻을 알 수 없는 난해한 노래였다. 『중용』에도 나온다. “나라에 도가 있으면 언론을 흥기하며 벼슬에 나가지만 도가 없으면 침묵으로 자신을 보존

하는 것이다.”^{주43)}

그러나 세상을 향한 꿈은 가득하였다.

‘홀로 문득’ 술을 좋아하였던 도연명을 시제 삼아 읊으면서도 밝혔다. ^{주44)}

때를 만나지 못한 도연명이 항상 한스러워,

常恨淵明不遇時

세상 경륜 큰 뜻을 동쪽 울타리에 묻어두다니 원

經綸大志沒東籬

팬스레 술 속에 빠진 것이 아닐진대,

沈冥麴蘖非徒爾

뉘라서 요순 기다리던 마음을 알아주리.

誰識心懷堯舜期

정녕 요순을 기다리는 마음, 좋은 세상을 향한 뜻을 굽히지 않았음이었다. ‘이름 모를 벗’에게 장풍파랑(長風破浪)의 소망을 내비쳤다. ^{주45)}

큰 병으로 허리 굽혀 절히길 그만두고 돌아왔더니,

一病歸來罷折腰

부질없이 시주머니만 풍성할 뿐 술은 늘 고프이.

詩囊空富酒難饒

거센 파랑 부술 큰 바람이 언제일까?

長風破浪知何日

그대와 구름 같은 돛단배 타고 멀리 가보았으면.

與子雲帆去路遙

일찍이 우렁찬 포부 뜨거운 이상을 실현할 수 없게 되자, 쫓겨난 신선[謫仙]을 자

처하였던 이백은 『행로난(行路難)』에서 “큰 바람 파도 부술 날 있으리니[長風破浪會有

時], 곧장 구름 같은 뜻을 달고 창해를 건너리라[直掛雲帆濟滄海]” 하였었다.

주1) 『孟子』 告子下, “君子之事君也 務引其君以當道 志於仁而已”; 離婁上, “惟大人 爲能格君心之非”.

주2) 『孟子』 萬章下, “貴戚之卿…君有大過則諫 反覆之而不聽則易位…異姓之卿…君有過則諫 反覆之而不聽則去”.

주3) 『孟子』 盡心下,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是故得乎丘民而爲天子 得乎天子爲諸侯 得乎諸侯爲大夫”, 民貴君輕의 관점에서 중국정치사상사는 蕭公權 지음, 최명·손문호 역, 『중국정치사상사』 (서울대출판부, 1998) 참조.

주4) 『高麗史』 121 열전 권34 ‘徐稷’; 朴淳 『思庵集』 권4 『高麗侍中節孝徐公旌閭碑銘并序』.

주5) 『三峯集』 권5(經濟文鑑) ‘宰相’ ‘引君當道’; 『太宗實錄』 권22, 11년 8월 2일.

주6) 『三峯集』 권3 ‘贈典校金副令詩序’. 金典校는 字가 義卿으로 공민왕 2년(1353) 李齊賢이 座主 知貢舉였을 때, 李穡 등과 같이 진사로 뽑혔다. 정도전의 사상과 인물에 대해서는 한영우, 『鄭道傳 思想의 研究』 (서울대한국문화연구소, 1973); 문철영, 『인간 정도전』 (새문사, 2014) 참조.

주7) 如某者 學非明體 才非適用 少小就業 滯跡寒鄉 無師友見聞之益 只學駢儷對之作 以得名於世 奇應教邊 爲校理時 至隣有召見 於其歸 欲携以俱焉 而不知其 既去也 以內賜筆遺之 後講小學書於慕齋相公 一見 舉王元之小友故事 語其佐金公以獎之 既而於友 得金若默 始聞學者之當有所趨向 心頗喜之 而未知有以求之也 又於師 得崔新齋 服其儀容之爽秀 詞氣之宏廓 尋得見於朴訥齋 則其言論之激厲 動息之整肅 又有以動人者 其亦不待言傳口受 而或有啓發其良心焉 退而偶閱真西山讀書記 至論蒸民首章之旨 始覺其天人之一致 實理之無不在 以謂學者之所當從事者 不在彼而在此也 粗涉朱呂寒泉之編, 왕원지의 이름은 禹偶으로 7세에 능히 시를 지으니 畢士安(938~1005) 기록하게 여기며 시구를 주자 너끈하게 대구하자, 『經論의 才』라고 탄복하며 加冠하며 小友라 불렀다.

주8) 권2, 送金立之奉尊府之任. 金立은 자 立之이며 호는 醒齋로 김평필의 손자였다. 1528년 사마시에 들었는데 부친 金彦庠(1480~1540)이 수령으로 나가자 따라 갔는데, 비안현감이라면 1532년 즈음, 군위현감이라면 1538년 즈음이다. 김입은 훗날 곡성·의흥현감, 옥천군수를 지냈다(瑞興金氏三世實記 권2 惺齋先生遺蹟). 미암집 권9, 『일기』 선조 5년(1572) 9월 18일에 의하면 “沃川郡守金立來訪 相與道厥祖寒暄堂之事 其在順天 我先人及孟權氏實從學 孟權氏之母薛氏 以子之故 盡心饋供 寒暄既訖 廢主令籍沒而喪事薛氏皆辦 即光孫叔父之妻也 語及此事 不勝感愴”

주9) 愚之意以爲氣化之在天者 固不可必其常也. 事理之在人者 苟能常得其宜而不失 則在天者又安有不應也. 然亦在乎上之人躬行心得 無一毫之不盡 然後通乎神明 格于上帝 而天地可位 萬物可育矣. 然而君不能以獨主 故堯必得禹而後 致平成之功 武王有周公之相而成丕承之烈. 臣不能以自專 故孔孟有德無位 而不能回唐虞之治 當今有堯武之君 而無大禹周公之臣 此固吾儒之所深恥 而有孔孟之不遇者 愚不信也. 明二帝三王之道 而行孔孟未行之事 輔聖主而參化育者 其必自廟堂之諸大人始“

주10) 『하서전집』 권3, 「送金師魯希參還鄉」

주11) 하서집 권1, 「薄御賜賦」

주12) 『하서전집』 권3, 「送柳仲沂洙之任沃溝」

주13) 『하서전집』 권8, 「次景游韻」

주14) 『하서전집』 권6, 「別李盛卿萬榮出宰金溝」

주15) 윤근수 『月汀集(別)』 권4, 「漫錄」

주16) 『하서전집』 권8, 「挽慕齋金先生」

주17) 『중종실록』 권100, 38년 1월 7일·9일

주18) 『중종실록』 권100, 38년 2월 24일

주19) 『연려실기술』 권10, 「을사당적」; 『명종실록』 권2, 즉위년 10월 13일

주20) 『潛庵逸稿』 권3, 「玉堂軸韻贈金厚之」

주21) 『하서전집』 권7, 「寄友人」; 『潛庵逸稿』 권5(부록), 「行狀(柳台佐 撰)」

주22) 『하서전집』 권8, 「盆菊 以新來入講院 與魯大春延齡及師魯同賦」

주23) 『하서전집』 권4, 「效邕吏平戒子歌用其韻并序」

주24) 『容齋集』 권9, 「東宮啓蒙序」

주25) 『하서전집』 권6, 「應製題春畫墨竹 癸卯」

주26) 『하서전집』 권11, 「弘文館箚子(癸卯)」

주27) 『중종실록』 권100, 38년 2월 19일·24일 및 3월 4일

주28) 『미암집』 권20, 「謚狀」; 『송재유고』 권4, 「연보」

주29) 『하서전집』 권3, 「送羅典翰世續決獄扶餘」

주30) 『하서전집』 권6, 「七月十九日 直玉堂作」

주31) 『중종실록』 권101, 38년 7월 20일

주32) 『중종실록』 권101, 38년 7월 22일

주33) 『회재집』 권9, 「謝恩箋(癸卯五月)」; 『중종실록』 권101, 38년 7월 24일

주34) 『하서전집』 권4, 「宦海」

주35) 『퇴계집』 권1, 「送金厚之修撰 乞假歸觀 仍請外補養親恩許之行」

주36) 『하서전집』 권8, 「孟明示以寡悔別章 余亦爲贈」

주37) 『하서전집』 권4, 「效邕吏平戒子歌 用其韻」 細註 “乙巳春…仁宗方出錢張天使于慕華館 衛仗與馬 縞素一色 拜起觀瞻 益哀愴罔極.”

주38) 『하서전집』 권8, 「見寡悔書」

주39) 『하서전집』 권3, 「無題」

주40) 『하서전집』 권4, 「落花嘆」

주41) 『하서전집』 권10, 「己酉秋作」 其二

주42) 『하서전집』 권7, 「記夢」

주43) 『중용』 “國有道 其言 足以興 國無道 其默 足以容”

주44) 『하서전집』 권7, 「偶吟」

주45) 『하서전집』 권7, 「贈友」

하서 김 인후선생을 기리는 필암서원 추향제 봉행

하서 김 인후선생을 기리는 추향제가 지난 10월 15일 필암서원에서 엄숙히 거행되었다. 이날 추향제에는 정운염 전북 유림대표, 정환담 본 산양회이사장, 김 광수 경남거창 유림대표, 김 달수 울산김씨 대종회장, 유 두석 장성군수와 이 고장 유림과 울산김씨 종친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추향제는 제물을 바치는 봉진례, 비단을 바치는 전폐례, 술잔을 바치는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순서로 진행됐다.

초헌에 정운염 전북유림 대표, 아헌에 김광수 경남유림 대표, 종헌에 황상길 장성고등학교장이 헌작하였다.

정 운염 초헌관은 ‘하서 김 인후선생은 동방의 주돈이(周敦頤), 호남의 공자’를 주제로 강론했다. 정 초헌관은 “조선시대 성균관 문묘에 배향된 18선정을 ‘동국18명현’이라 하는데 하서선생 배향에 반대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며 “정조대왕이 배향을 주도한 데다 선생의 학문과 행적에 흠이 거의 없고 호남인으로는 유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향제 후 ‘하서 유적지 탐방 글짓기 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김 승주양(장성 진원초 5학년)이 수상작 ‘우리 고장 장성의 자

랑스러운 유적지를 찾아서’를 청절당에서 우동사(祐東祠)를 향하여 봉독해 올렸다.

국립중앙도서관 ‘울산김씨 내외보’ 일반에 최초 공개

본-외손 모두 기록...가장 오래된 조선 전기 족보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내외보(內外譜)인 ‘울산김씨내외족보’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반인에게 최초로 공개되면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내외보란 아들뿐만 아니라 딸의 자식도 기록한 족보로, 조선 전기의 족보형태다. 조선시대 족보가 남성 중심으로만 기록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학계에서는 큰 가치로 평가하고 있다.

‘내외보’라는 명칭으로 된 가계 기록이 오늘날 많이 남아 있지 않으며, 현재 알려진 내외보로는 1689년 작성된 <울산김씨내외보蔚山金氏內外譜>(개인소장)와 1694년에 작성된 <충주박씨내외자손보忠州朴氏內外子孫譜>(한국족보박물관 소장) 등이 있다.

<울산김씨내외족보>는 울산김씨 본손과 울산김씨 외손을 모두 수록한 족보다.

국립중앙도서관 김 효경 학예연구사에 따르면, 내외족보를 발간하는 이유는 외손도 친 자손처럼 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

들을 보면 울산김씨 친손이 20%, 외손이 80%로 울산김씨보다는 울산김씨 외손의 수가 훨씬 더 많다. 이는 단순히 울산김씨 사위만을 표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위의 사위’, 혹은 ‘그 사위의 사위의 사위’를 끝까지 추적해 적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 초기에 발간된 족보에서 공통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표기법이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로 알려진 <안동권씨족보>(일명 안동권씨 성화보1476)나 <문화유씨세보>(일명 문화유씨 가정보 1565) 역시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족보의 제목은 ‘내외족보’가 아니라 단지 ‘족보’ 또는 ‘세보’로만 돼 있어 ‘내외’라는 명칭이 붙은 족보는 <울산김씨내외족보>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0월 13일 본 산양회 이사회 열다

이사 임기만료로 새이사

박래호, 김성, 김용하 선임

지난 10월 13일 17시 예원식당에서 2018년 정기총회 개최와 임기 만료된 이사의 후임을 뽑기 위해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

정채호, 김용숙, 김인수이사가 퇴임하고, 정환담, 김장수이사가 연임됐으며, 박래호, 김성, 김용하씨가 새 이사로 선임되었다.

이어서 2018년 정기총회 및 연사초청에 대해 논의하여 조선대학교 이종범교수를 초청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본회의 목적과 성격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본회 <山仰會報>의 제호 명칭을 <河西道學과文學>으로 바꾸어 2018년 제31호부터 새롭게 출발하기로 했다.

필암서원 원지 국문번역에 앞서 기존의 <筆巖書院誌>에 이어서 현재까지 필암서원의 활동사항과 기록을 정리하여 현대원지를 편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김장수이사의 제안이 있어 추진하기로 했다.

河西 金麟厚선생과 淳昌의 儒學

2017년 훈몽재 학술대회 성료

<하서 김인후선생과 순창의 유학>이라는 주제로 2017년 훈몽재 학술대회가 지난 8월 25일 14시에 순창군 북흥면 훈몽재에서 전북, 순창 유림과 울산김씨 서울과 광주 종친, 남원양씨 고령신씨 종친, 그리고 멀리 중국 남창(南昌)대학교 학생과 교수가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 학술대회를 위하여 황숙주 순창군수가 적극 지원하였고 하서학술재단이 후원하였다.

한국전통문화대 최영성교수가 /하서 김인후의 순창에서의 강학활동/이라는 주제를 총집약하여 발표하고, 건국대 정상봉교수, 중국 남창대 서복래(徐福來)교수

가 논평하였다.

이어서 전주대 소현성교수가 /하서 김 인후의 유학사상-일상의 삶과 효 윤리/를 발표하고 한국외국어대 강진석교수가 논평하였다. 소현성교수는 하서의 <효부(孝賦)>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였다.

전주대학교 노평규교수가 /백수 양응수(白水 楊應秀)의 생애와 유학적 저술에 관한 고찰/을 발표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은혁교수가 논평하였다.

전북대 철학과 유지웅교수가 /여암 신경준(申景濬)의 실학사상의 지향점: 백성을 위한 돌봄의 학문/주제로 발표하고 성균관대 이형성교수가 논평하였다.

끝으로 성균관대 이천승교수가 /노사 기정진(奇正鎭)의 성리설과 그 함의/를 발표하고 중앙대 철학과 안재호교수가 논평하였다.

본회 김세곤이사, 〈아우슈비츠 수용소 여행〉 책 펴내다

본회 김세곤이사(호남역사연구원장)가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한 후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수용소 해방 이후 독일인의 변화, 홀로코스트 문학과 영화에 대해 살펴 본 것을 책으로 펴낸 것이다.

이 책 1부/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나치가 유대인들을 절멸시키기 위해 폴란드 옛 수도 크라쿠프에서 서쪽으로 70킬로 떨어진 곳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어떤 전쟁범죄를 벌였는지 묘사한다. 2부/홀로코스트의 기억/에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이후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변하고 영화와 문학작품에 수용되었는지를 살폈다.

저자는 수용소 입구에 쓰여 있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돼 있다’문구를 들어 ‘고난과 형극의 과거를 잊지 마라. 기억하여야 아픈 역사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본회이사 소암 김 용숙, 한시집(漢詩集) 펴내다

본회 김 용숙 이사가 평생 써온 한시 410편을 모은 ‘소암 한시선’을 발간했다.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현대인들을 위해 원문에 한글로 음을 달고 우리말로 쉽게 풀어 써 누구라도 시의 뜻을 음미할 수 있게 했다.

소암의 한시에는 충효의 정신과 고향의 수려한 풍경, 80년 인생에서 깨달은 연륜이 담담하게 배어 있고, 일상에서 느낀 사유와 정감들은 낭만적이다.

하서 김 인후선생의 14대손인 소암은 2008년에 하서선생의 천명도(天命圖)를

쉽게 설명한 책을 낸 바 있으며, 2003년에는 하서선생이 우리말로 옮긴 ‘백련초해(百聯抄解)’를 현대어로 풀어쓴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본회 ‘山仰會報’ 제호 ‘河西道學과文學’으로 바꾸기로

2년여의 논의 끝에 본회 ‘산양회보’ 제호를 2018년에 발행되는 제31호부터 ‘河西道學과文學’으로 바꾸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본회 명칭을 그대로 제호로 삼은 데다가 오늘날 사람들이 쉽게 이해되는 용어가 아니어서, 본회의 성격과 지향할 목표를 보다 선명히 드러낼 수 있는 제호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제호의 변경에 따라 표지 디자인과 편집 방향과 내용도 새롭게 바꿀 예정이다.

金星, 金容河 본회 새 이사 선임

5명 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김성전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김 용하 전 광주고등학교 교장을 새 이사로 선임하였다.

김 성이사는 오랫동안 언론계에 몸담았고, 최근에는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광주문화재단 이사, 광주대 초빙교수, 국방

부 5.18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언론과 문화계에 발이 넓어 본회 활성화에 크게 기대된다.

김 용하이사는 광주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하고 광주시인협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조선대학교 사범대 겸임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 본회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필암서원 보수 마무리

2014년 필암서원 정밀 실측조사 보고서 및 2015년 12월 “필암서원 종합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2019년 7월 15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로 주변환경정리 및 건물 보수작업을 완료했다. 특히 한국의 서원 이코모스 자문 실사의

권유사항을 완벽하게 보수 정리했다.

구석교량, 필암교량 등을 신설하고, 서원 진입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였으며, 4대강 주변 소하천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문필천에 필암서원 문화벨트를 새로이 조성했다.

서원 앞 공원의 수목 제배치로 숙원사업이었던 우동사, 내삼문, 청절당, 학연루, 삼봉산으로 이어지는 동선의 직선화 작업을 완료했다.

필암서원 집강 인사

필암서원은 2017년 10월 15일 집강 인사를 시행하였다

구분	성명	주소	경력	연락처	비고
원장	朴秉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서울시니어스분당타워 432호	서울 법대 학장	010-3740-1244	유임
도집강	鄭雲炎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1060-8 현대@ 1001호	고등학교이사장 전북 대표유림	063-272 3900	유임
도집강	吳仁均	광주 남구 용대로 145 라인호 친@ 203-803호	전광주향교전교	010-3618-0005	유임
도집강	丁彩鎬	광주서구운천로56-19 삼능@ 101-301호	경제기획원국장	010-9443-1436	신임
군집강	朴來鎬	장성군장성읍내기길70	성균관 부관장	010-6712-8881	유임
군집강	李忠源	장성군장성읍청운3길6-1	장성향교사무국장	010-3621057	
군집강	金漢植	장성군동화면동계길25-4	광주향교임원	010-2270-5149	신임
군집강	金萬源	장성군삼서면금산로147-26	장성향교임원	010-8907-2327	신임

2017년 추향제 헌성금

2017년 10월 15일

姓名	직위 및 주소	金額	姓名	직위 및 주소	金額
학술회	필암서원학술회	4,000,000	김문수	엠에스토피아사장	100,000
산양회	필암서원산양회	500,000	김을수	울김장성종친회장	100,000
김인수	문정공 도유사	500,000	김상진	고창군흥덕면치룡	50,000
김달수	울산김씨대종회장	300,000	김병성	고창군고창읍월곡리	50,000
김광수	거창향교 아헌관	100,000	양중호	담양군수북면쪽재골	50,000
정연진	담양군대전면행성리	100,000	진화섭	담양군대전면 태목	50,000
김성수	문정공부도유사	100,000	반강진	장성군노인회장	50,000
김상현	문정공 부도유사	100,000	변 원	봉암서원 별유사	50,000
김재일	문정공 운영위원	100,000	심대섭	장성 남면 양계사	50,000
김동식	울김광주종친회장	100,000	이흥주	북구운암동벽산201-403	30,000
김상윤	장성교육장	100,000	정동연	바르게살기협의회회장	50,000
김동식	울김서수현공종중	100,000	김상준	울김대종회부회장	50,000
문영수	장성향교 전교	100,000	김경수	동구중흥동209-18	50,000
정환담	광주향교유학대학장	100,000	김병권	장성군민신문사	50,000
김용대	계파 도유사	100,000	김상규	건축설계사	50,000
고달석	서구 치평동 금호 406-1006	100,000	고광춘	장성 청년유도회장	50,000
문경규	전 담양군수	100,000	김상로	경기광명시 오리호	50,000
김재완	장성군의회의장	100,000	이계명	전 전남대 교수	50,000
김관중	장파 도유사	100,000	김종화	남구봉선동무등202-1704	50,000

… 筆巖書院 山仰會 活動事項 …

- 2001년 8월 22일 필암서원에서 고흡곤 씨 등 유림 230명이 모여 구 산양계를 ‘산양회’로 발족
- 2001년 8월 22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생애와 사상”주제 아래 安晉靑 회장(전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년 10월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추향후 “우암선생이 본 하서선생” 주제 아래 趙鍾業 충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년 12월 22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의 도학과 절의”주제 아래 金基鉉 전북대 윤리학과 교수의 강회
- 2002년 3월 10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 후 “인종승화와 하서의 절의”주제 아래 金鎮雄씨(서울대 공대졸, 부산 거주, 문정공파 부도유사)의 강회
- 2002년 8월 22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 신도비명-우암 송시열찬”을 朴來鎬씨(서원 집강)가 번역 봉독
- 2002년 9월 26일 秋享 후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천명사상”의 주제 아래 尹絲淳 고려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2년 12월 10일 회원 소식지인 山仰會報(통권제1호) 1000부를 발행 配布
- 2002년 12월 23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의 선비정신” 주제 아래 전주대 吳鍾逸 교수의 강회
- 2003년 3월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후 “하서 문학의 도학적 이해”의 주제 아래 朴煥圭 전남대 명예교수(담양 가사 문학관장)의 강회
- 2003년 5월 28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한시 백일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安晉靑 산양회장(전남대 명예교수, 다산학 연구원장)의 특강을 하는 등 하서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탐구 전파하는 데 기여하였음
- 2003년 6월 20일 회원 소식지인 山仰會報(통권제2호) 1,500부를 발행 配布
- 2003년 7월 13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현대한국유교의 과제” 주제 아래 서울대 종교학과 금장태 교수의 강회를 여는 등 하서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탐구 전파하는 데 기여하였음
- 2003년 9월 23일 추향제를 올리고 “하서 선생의 경연 활동과 군무 교육”이라는 주제로 전남대 안동교 교수가 강연하였음
- 2003년 12월 10일 山仰會報 제3호 1500부를 발행 배포
- 2003년 12월 17일 산양회정기총회, 安晉靑 회장과 金長洙 총무가사임하고 새회장에 朴鍾達, 새총무에 孔鍊雄 선임.“河西詩의 道學的 성격”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국학연구원 金永峯 교수가 강연함
- 2004년 3월 9일 춘향제를 올리고, 서울대 박병호 교수가 河西선생이 경연과 세자시강원에서 강한 내용을 조선왕조실록에서 뽑아 강연하였음
- 2004년 9월 25일 추향제를 올리고, 최근덕 성균관장이 “河西의 학문적 연원과 성리학적 위치”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4년 12월 10일 산양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河西의 經濟思想”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경제학과 이현창 교수가 강연함. 山仰會報4호 1500부 발행
- 2005년 3월 28일 춘향제를 올리고, “한국유림이 나아가야할 길”이라는 주제로 고려대 전총장 洪一植 박사가 강연함
- 2005년 6월 3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연세대 송주호 교수가 “河西詩의 몇 가지 국면”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5년 9월 20일 추향제 올리고, ‘河西선생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이준범 고려대 전 총장이 청절당에서 강연함
- 2005년 12월 8일 산양회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박종달 회장이 연임되고, ‘河西선생의 中和 思想’이란 주제로 전주대학교 吳鍾逸 교수가 강연함
- 2006년 3월 20일 춘향제를 올리고, 노강 박래호 총무가 河西 선생의 『復性賦』를 낭독하고 강론
- 2006년 7월 5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하계 학술강연. 서강대 백승중 교수가 ‘조선전기의 사림정치와 하서 김인후’라는 주제로 강연함
- 2006년 10월 1일 춘향제를 올리고, ‘政治人이 우리러보는 河西 先生’이라는 주제로 초현관 李重載 상임고문이 강연함
- 2006년 12월 13일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 「하서 김인후와 미암 유희춘」이란 주제로 조선대학교 이종범 교수가 강연함
- 2007년 4월 3일 추향제 올리고 ‘하서선생이 21세기에 유림에게 던지는 메세지’란 주제로 변은섭 유도회 총본부 회장이 강연했음
- 2007년 12월 21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조선시대 禮學의 발전과 禮治」라는 주제로 광주대학교 고영진 교수가 강연. 산양회보 10호 발간. 吳仁均 신임회장 선출

- 30호 목 차 -

하서 김 인후선생은 해동의 周敦頤요 호남의 孔子 I 초현관 정운염(鄭雲炎) -----	01
도학과 절의와 문장의 선비, 하서 김인후 선생 기행 I 김세곤(호남역사연구원장) -----	06
誠 -----	11
河西 金麟厚의 出處義理와 道學世界 I 이종범(조선대학교교수) -----	13
필암서원 · 산양회 소식 -----	31

- 알 림 -

1. 변경된 새 주소와 전화번호를 써 주십시오.

- 앞으로 새 주소록을 만들려고 하니 새로이 시행될 주소와 변경된 전화번호를 방명록에 꼭 적어주십시오.

2. 회비 입금 계좌 및 입회 절차 안내

- 회원님들께서는 장성 농협(301-0093-8931-91) (사)필암서원 산양회 계좌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강연회 또는 춘추향제에 나오시거나 전화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의 농협 계좌로 입회비 3만원을 입금하시고 전화(010-2705-6395 김재수)로 다음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① 성명(한문) ② 본관 ③ 아호(한문) ④ 생년월일 ⑤ 주소 ⑥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⑦ 학력 및 경력, 현직

3. 청 · 장년, 여성 유림의 입회를 적극 환영합니다.

사단법인 필암서원 산양회 이사장

… 筆巖書院 山仰會 活動事項 …

- 2008년 3월 18일 춘향제 올리고, 「하서선생과 가사문학」이란 주제로 문경규 전 담양군수 강론
- 2008년 7월 17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박준규 박사가 「河西 문학의 道學的 이해」 강연. 산양회보 11호 발행
- 2008년 9월 20일 춘향제 올리고, 柳承國 원장이 「東아시아 사상 基調로서의 道와 河西思想」이라는 주제로 강연
- 2008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김재수 교수가 「河西는 佯狂爲奴論을 왜 썼는가」 강연함. 산양회보 12호 발간
- 2009년 3월 13일 필암서원에서 春香祭 올리고 安炳周 박사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학문」을 주제로 강연.
- 2009년 7월 1일 崔山斗 先生의 도학정신(최대우 교수) 강연, 山仰會報 13호 발간
- 2009년 9월 29일 춘향제. 이동준 성균관대 전 유도대학장이 「하서 선생의 학문 세계」 강연
- 2009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이준영 감사 「예기유행편」 강독, 산양회보 14집 발간
- 2010년 3월 28일 춘향제 올리고 하서 선생 도학과 절의에 대한 강연.(金東炫 율곡사상연구원 이사장)
- 2010년 7월 7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선비정신 확산을 위한 우리의 노력 (김병일 한국국학진흥원장) 하서 선생의 上李太守書에 대하여 (金正洙) 강연, 산양회보 15집 간행
- 2010년 12월 16일 광주 향교에서 정기총회, 선비의 시각으로 파악한 河西 선생 : 오종일(전주대 명예 교수) 강연
- 2011년 3월 23일 춘향제 올리고, 김병일 원장 「선현이 맺어준 아름다운 인연」을 주제로 강연
- 2011년 7월 6일 집성관에서 '한국 유학의 현대화를 위한 논점 세 가지'(전남대 김기현 교수 강연) 회보 17호 발간
- 2011년 9월 9일 춘향제 올리고 초현관 심우영(전 총무처 장관, 전 한국국학진흥원장 장관) 강연
- 2011년 12월 20일 광주 향교에서 정기총회, 하서 김인후의 誠敬 사상 : 이해희(강원대 교수) 강연
- 2012년 3월 7일 춘향제, 초현관 최상옥 회장
- 2012년 7월 4일 집성관에서 '하서 선생의 시문학에 대한 후인들의 평가' 박명희 박사(전남대 호남학 연구원)
- 2012년 10월 3일 춘향제 올리고, 초현관 박병호 원장 「하서 선생에 대한 사관(史官)의 평가」 강연
- 2012년 12월 27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정환담 학장 : 「하서 사상의 현대사적 재조명」 강연
- 2013년 3월 22일 춘향제 올리고 초현관 이낙연 의원 「河西의 出處는 오늘날 공직자의 귀감」 강연
- 2013년 7월 1일 집성관에서 '동춘당과 우암의 하서 존숭' 김문준 교수 강연(건양대)
- 2013년 9월 30일 춘향제 올리고 초현관 이정식(호남대 공자아카데미 원장)이 '한중 호남 문화속의 악록서원과 필암서원 교류 의미와 전망'이란 주제로 강론
- 2013년 12월 13일 광주 향교에서 정기총회, 고영진 교수, '하서 김인후, 그가 만났던 사람들' 강연함
- 2014년 3월 17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이성무 한국학술원 부원장, '하서 김인후의 생애와 사상' 강연함
- 2014년 6월 25일 집성관에서 '청백리 사암 사암(思菴) 박순(朴淳)의 생애와 사상'이란 주제로 다산연구소 박석무 이사장 강연
- 2014년 9월 13일 필암서원 춘향제 올리고 초현관 서정기 성균관장 '유교와 현대 민주주의' 강연
- 2014년 12월 17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후 성균관대 이기동 교수 '하서의 철학과 복성부(復性賦)' 강연
- 2015년 4월 1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뿌리회 이용규 전 회장 '강화학과 정신과 독립운동' 강연
- 2015년 10월 2일 춘향제 올리고 박광순 학술원 회원 '유교의 종교성에 관한 일고찰' 강연
- 2015년 12월 17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후 오종일 전주대 교수 '하서 선생시의 천명사상과 그 지향성' 강연
- 2016년 3월 26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송하경 성균관대 명예교수 '하서선생 <천명도 제사>의 우리 말 해석에 대한 소견' 강연
- 2016년 7월 8일 집성관에서 김충호 훈몽재 산장 '도학의 원류와 하서선생 도학시'로 강연
- 2016년 9월 12일 춘향제 올리고 초현관 고재유(전 광주광역시장) 인사말
- 2016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후 강위원 여민동락공동체 대표 '공동체는 탁월한 개인보다 지혜롭다' 강연
- 2017년 3월 11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하서 김인후 선생과 지역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초현관 정병석 전남대 총장 강연
- 2017년 7월 3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원광대 김봉곤 교수 '하서 김인후선생의 절의와 도학' 강연
- 2017년 10월 15일 춘향제 올리고 정운염 초현관 '하서 선생은 해동의 주돈이요 호남의 공자' 강연